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2007년 11월 16일부터

전세계 위성으로 방송

10개 위성 새로 추가

인터넷 생중계

www.SupremeMasterTV.com/kr

칭하이 무상사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92호



칭하이 무상사의 친필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학 개들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1위 기록



사랑스런 내 인생학 새들 신간 발표회

포모사 전국 서점과 전세계 온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2007년 11월 16일부터
전세계 위성으로 방송

아시아: ABS (75°E), ASIASAT 2 (100.5°E),
ASIASAT 3S (105.5°E)

아프리카: INTELSAT 10 (68.5°E) KU-BAND

아시아, 아프리카: INTELSAT 10 (68.5°E) C-BAND

북미: GALAXY 25 (97°W)

남미: HISPASAT (30°W),
INTELSAT 907 (27.5°W)

호주, 뉴질랜드: OPTUS B3/D2 (152°E)

중동, 북아프리카: EUROIRD 2 (25.5°E)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HOTBIRD (13°E), ASTRA 1 (19.2°E)

10개 위성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감동을 주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30개 이상의 언어와 자막으로 시청하세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위성 TV 채널이며 인터넷 생중계합니다.

www.SupremeMasterTV.com/kr



<http://www.Godsdirectcontact.org/links>

CONTENTS 차례

뉴스잡지 192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8월 3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 앞표지 안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2007년 11월 16일부터 전세계 위성으로 방송
 10개 위성 새로 추가
- 04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태국/ 포모사/ 중국/ 캐나다/ 토고/ 몽골
- 19 주요 연락처/ 관음 웹사이트
- 20 시
 칭하이데이를 맞아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사랑하는 스승님께
- 21 특별 보도
 칭하이데이 14주년 기념일/ 파리 선삼-영혼을 위한 영원의 순간들
- 25/ 57 이야기 세상
 천국에 있는 듯했던 파리 선행사/ 잊지 못할 중추절 월병
- 26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조용히 선도하는 유럽 도시들
- 30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겸손과 무아의 삶을 사는 천국에서 온 다리 건축가
- 32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로리 보스턴과 애니멀 에이커스/
 환경 운동을 시작한 소년
- 36 빛나는 세계 자비상
 스승님의 시기적절한 도움으로 유기견들의 몸과 마음이 따스해지다
- 38 특집 기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애독자들에게 신선한 흥분을 선사하다
- 4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물은 우리 내면의 사랑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 47 스승님의 농담
 뭐 잃어버린 사람 없소/ 대장이니까
- 48 당신은 모르실 거야
 동물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선물
- 50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
 사랑으로 거리의 동물들을 돌보다
- 52 동물의 감성 세계
 또 하나의 언어-동물의 세계에서 온 메시지
 파스칼 도지테 & 케옵스와의 단독 대담
- 56 신기한 감응
 스승님께서 축복 사탕으로 나의 생명을 구하시다/
 금빛으로 환히 빛나던 중추절 보름달
- 58 지혜어록
 동물을 대하는 방식
- 59 사랑의 실천
 니카라과/ 어울락/ 필리핀/ 중국/ 포모사
- 68 전세계 연락처
-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DVD



동 물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아울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의 마음에서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채식 생활을 선택하고 살생을 멈추라고 일깨워 준다. 모든 동수들에게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신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가 텍사스 도서 축제에서 첫선을 보이다

텍사스 오스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스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3일 주말, 국제협회 오스틴 센터 회원들은 텍사스 연례 도서 축제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들을 처음으로 전시했다. 근래 들어 방문객이 4만 5천에 육박하는 이 행사는 오스틴 시내에 있는 아름다운 주의회의사당(State Capitol Complex) 건물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 처음 참가한 오스틴 센터는 대중들에게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비롯한 스승님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한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 메시지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스승님의 새들과 개들을 찍은 생생한 사진들은 모든 연령층의 동물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참관객들은 자기 동물들에 얹힌 경험담을 동수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물 친구들이 송고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묵묵히 수많은 개를 구조한 이 지역의 한 부부는 자기네 개들이 "다른 형태의 몸을 가졌을 뿐 인간"이라고 말했다. 새를 키운다는 한 사람은 앵무새가 자기 기분을 너무나 잘 알아차리는 까닭에 좌절하거나 슬픈 기분을 안고 귀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그러면 새들이 그녀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한 소녀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생생한 색채에 이끌려 즐겁게 책장을 넘기면서 새들이 정말 귀엽고 아름답고 장난기가 넘친다고 탄성을 질렀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대안적인 삶'.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채식 요리쇼 DVD, ‘진정한 영웅’ DVD를 선물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고귀한 일을 칭찬했으며 이 세상에 긍정적인 뉴스가 보다 많아지기를 희망했다.

행사장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기자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책 『염소 이야기-이지의 일지(Goat Tales: The



Izzy Journals)』를 쓴 작가 테이시 엘리스(Tacy Ellis) 씨와도 인터뷰를 가졌다.

이지의 관점에서 줄거리가 진행되는 이 책은 테이시 가족의 일원인 이지 의 성장 과정과 잊지 못할 생활 경험을 묘사한다. 저자는 자신이 구한 몇몇 양들을 이 축제에 데려오기까지 했다. 오스틴 센터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테이시 씨와 함께 스승님의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영광을 누렸다. 그녀 또한 매우 기뻐하며 이 두 권의 책을 읽기를 고대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동수들 모두 떨 듯 이 기뻐했으며 다음에 있을 축제에도 어서 참가하고 싶어했다. 🍁



좋은 소식을 나누다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하이오]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오하이오 센터는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박람회인 제19회 ‘우주의 빛 박람회(Universal Light Expo)’에 참가해 ‘채식 생활 방식’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알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와 칭하이 무상사 강연 비디오를 시청하고 최근 출간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등 영성 서적들을 훑어볼 기회를 가졌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인 질문을 했으며, 긍정적인 방송 채널과 대안적인 생활 방식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





빠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찬탄했으며 살생이 없는 자비로운 식생활 개념에 공감했다. 다른 부스의 한 여성은 바로 전달, 남편에게 유익하고 힘이 나는 소식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박람회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우리 부스로 되돌아와 책과 DVD를 가져가기도 했다. 그중 한 사람은 스승님한테 있는 그 뭔가가 우리 부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 부스에 와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주의 깊게 보던 장애인 여성에게 DVD를 주었던 한 동수는 그녀가 흔쾌히 받아들이자 아주 기뻐했다.



켄 하쉬(Ken Harsh) 박람회 조직위원회 의장은, 우리 단체가 ‘우주의 빛 박람회’에 참가해 서로의 이념을 나누고 교류해 줘서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참여로 이 행사가 더욱 특색 있는 박람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협회 회원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 자비롭고 긍정적인 생활 방식을 알릴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통해 고양될 때 우리 지구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될 것이다. 🍁

2007 중부 플로리다 채식 축제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플로리다] ‘중부 플로리다 채식 축제(Central Florida VegFest)’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플로리다 올랜도에 서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입장료도 무료이고 음주와 흡연도 금지되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7일 토요일, 올랜도의 아름다운 로하벤(Loch Haven) 공원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100개가 넘는 판매대가 설치되어 다양하고 폭 넓은 채식 요리와 생활 양식을 선보였다. 온화한 날씨 속에 이날, 수천 명의 방문객이 이 독특하고 다채로운 전시 행사를 찾아왔다.



이 행사에 참가한 플로리다 센터는 전시용 부스로 천막 두 개를 설치해 한 군데서는 스승님의 책과 DVD·CD·뉴스잡지·천의 등을 전시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현수막과 포스터로 아름답게 장식한 다른 데서는 소책자, 전단, 인쇄물, 자석 스티커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배포했다. 이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시식할 다양하고 맛있는 채식 음식도 멋있게 차려 놓았다. 이 두 개의 천막 사이에는 ‘칭하이 무상사 국

제협회, 관음법문'이라고 쓰인 눈에 잘 띄는 현수막도 걸었다.

맛있는 채식 요리에 많은 행인들이 이끌려 왔으며 채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금세 긴 줄이 생겨났다. 동수들은 모든 손님들에게 스승님의 잡지, '대안적인 삶' 전단, 요리쇼 DVD,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지와 자석 스티커로 가득 찬 가방을 나눠 주었다. 모두들 아주 기쁘게 받아 갔다. 한 여인은 잡지 표지에 있는 스승님 사진을 보더니 놀라워하며 10년 전에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다고 말했다. 꿈에서 뵈었는지, 실제로 뵈었는지를 묻자 그녀는 대답은 안 하고 미소만 지은 채 걸어갔다!

천의를 전시한 부스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며 귀여운 동물 그림이 그려진 화사한 색깔의 티셔츠들을 입어 보고 사 갔다. 많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팀의 인터뷰를 수락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몇몇 사람들은 관음법문에 대해 묻는 등 영적인 관심을 보였다. 동수들은 모두 이 흥겹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날에 대중에게 봉사하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기뻐했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 2007년 세계 채식인의 날 경축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더블린]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6일, 아일랜드는 더블린 중심부에 위치한 템플바(Temple Bar)의 수련원에서 연례 '세계 채식인의 날(World Vegetarian Day)' 경축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2천 명가량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더블린과 코크(Cork) 지역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열정적인 방문객들에게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 가방을 나누어 주느라 분주했다. 방문객들은 이런 무료 선물을 받고 매

우 기뻐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 채식주의가 되고 방법법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이번 행사 도중에 참가자들은 '카페프레쉬(Cafe Fresh)', '고빈다스(Govindas)', '베지플래닛(Veggie Planet)', '해피페어(Happy Pear)' 등 더블린 최고의 채식 식당에서 제공하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다양한 채식 음식을 세상에 알리는 '세계 채식인의 날'은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고 동물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채식을 해야 할 때임을 일깨워 주었다. 🍁





일본

도서관에 동물 사랑 DVD를 기증하다

군마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군마]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접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이념을 이해할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최근 군마 센터는 스승님의 최신 DVD인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을 시청각 시설이 구비된 지역 도서관에 기증했다. 우리는 도서관 직원이 배달된 소



스승님의 DVD를 기증받은
도서관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

포의 내용물을 한눈에 알
아볼 수 있도록 DVD 표지
사진을 스티커로 제작해
소포에 붙였다. 이 DVD를
보는 사람들이 깊은 영감
을 얻고 이 DVD가 전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이해하리
라 믿는다. 🍁



도쿄 언론 매체의 지지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도쿄] 도쿄 센터 동수들은 일본 전역에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일했다. 지금까지 광고 대행사 두 곳에서 무료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전단을 『아사히 신문』에 끼워 넣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중 『아사히 플라자(Asahi Plaza)』는 6월분을 맡고 『아사히 미디어(Asahi Media)』는 8월부터 10월분까지를 맡았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말, 두 명의 동수가 이들 대행사를 방문해 감사 편지와 스승님의 DVD·서적·전본책자·과자 등을 선물했다. 회사 대표들은 멋진 선물을 받고 매우 놀라면서도 기뻐했으나



『아사히 플라자』 대표 이세야 씨.

너무나 겸손한 까닭에 기념 사진을 찍는 것도 겨우 동의해 주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승님이 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한 그들은 “이런 기회를 얻은 저희가 영광입니다.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광고 대행업체 모두 기꺼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를 계속하고자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자기네 신문에 다음 광고를 싣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



협회 회원에게서 간행물을 받고 있는 『아사히 미디어』의 총무부장 이케다 씨(왼쪽).

대한민국

한국 도서관에 스승님의 책을 기증하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한국]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한국의 전국 센터들은 스승님의 다양한 출판물을 여러 곳에 기증했다. 서울 센터는 최근 『즉각 깨닫는 열쇠』와 견본책자를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에 비치했다. 부산 센터도 스승님의 책을 부산시와 경남 지방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대구 센터는 대구와 인근 도시의 11개

도서관에 책을 기증했다.

경남 지방의 한 도서관에서 『즉각 깨닫는 열쇠』를 훑어본 한 여성은 그 내용에 너무나 이끌린 나머지 책을 대출해 집에서 더 자세히 읽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은 그녀는 부산 센터에 입문 신청을 하고 현재 아주 열심히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도 곧 출간될 예정이어서 한국 사형사자들은 책을 통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긍정적인 언론 매체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다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부산 센터가 적십자 회관에서 개최한 비디오 강연회에 취재하러 온 『뉴스 포커스』 잡지의 기자 두 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그 뒤, 그들은 9월호 잡지에 두 페이지를 할애해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 ‘수프림 마스터 TV’,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활동에 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자세한 기사를 실었다. 이 잡지는 주요 관공소와 도서관, 청와대에도 배포되는데, 9월호는 서울의 주요 서점에서 동일 계열 잡지 중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9월 24일, 스승님을 대신해 부산 센터가 대표가 서면에 있는 한 전통찻집에서 황지연 기자와 취재부 팀장을 만나 감사장을 전달하고 스승님의 출판물과 CD, DVD, 초콜릿, 사탕, 꽃다발 등을 선물했다. 황 기자는 스승님의 세심한 배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며 기자 생활을 한 이래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순간이라고 말했다. 두 기자 모두 체험이 아주 좋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명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황 기자와 취재부 팀장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한국 위성 방송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뉴스포커스』와 같은 또 하나의 잡지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도하는 긍정적인 매체에 동참하다니,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




뜻 깊은 백제 문화제

광주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광주]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대전과 광주 동수들은 제53회 백제 문화제에 참가해 대중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이 문화제는 B.C. 18년에 건립되어 700년간 정치적·문화적으로 번성했던 고대 백제 왕국을 기리는 축제로서, 처음 시작한 이래 점차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해 일본·중국·캄보디아·프랑스·필리핀 등 7개국

에서 2,600명의 외국인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전통 예술을 공연하고 서로 우정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에 관심을 보이며 안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읽었다. 이번 행사는 한때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새롭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매우 특별하고 뜻 깊은 자리였다. 

태국

쉽 없이 고귀한 메시지를 전하다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방콕]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태국의 모든 동수들은 서로 힘을 합해 열성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은 다음과 같다.

♥ 태국어와 영어로 된 ‘대안적인 삶’ 전단 10만 부 인쇄.

♥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소식이 새겨진 서류 폴더 4만 개 제작.

♥ 동수들의 차량에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 부착.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현수막 110개 제작.

♥ 『세계일보』(아시아에서 널리 배포되는 중국어 신문), 『마띠쵸(Matichon)』, 『카오소드(Khao Sod)』, 『곰차드룩(Kom Chad Luek)』, 『끄룽텝투라킷(Krungthep Thurakit)』, 『네이션(The Nation)』 등의 일간지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게재.

♥ www.manager.co.th와 www.bangkokpost.com에 전자 신문 게재.



♥ 『HIFI』, 『AV』, 『카오디오 엔터테인먼트(Car Audio Entertainment)』, 『TV 풀(TV Pool)』 등의 각종 잡지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게재.

이 중 『마띠쵸』 신문은 5일 동안 무료 광고를 실어 주기도 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9일, 감사를 표하기 위해 태국 동수들은 신문사를 방문해 스승님을 대신해 감사 편지를 전달하고 스승님의 책과 DVD, 홍보용 폴더, 전단, 채식 케이크 등을 선물했다. 광고부 부장 추띠완 께사락(Chutiwan Kesarak) 여사는 이 멋진 선물을 받고 매우 놀라며 기뻐했다.

동수들은 이런 자비와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태국 국민들도 이 소식을 잘 받아들였다. 지구를 고양시키고 인류를 황금시대로 이끄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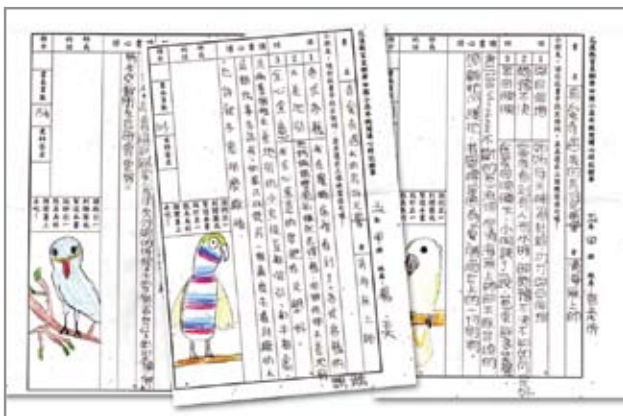
포모사

스승님의 신간이 동해안에 사랑을 가져오다

화렌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화렌] 최근 화렌 센터는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초등학교와 대학교, 도서관 등 70여 곳에 기증했다. 책을 받은 기관들마다 매우 기뻐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쉐티엔(學田) 초등학교 양츠쉬엔 교장은 스승님의 책을 읽고 나서, 앞으로 이 책을 보조 교재, 미술 수업 소재, 과외 독서 교재 목록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몇몇 학교장과 선생님들도 동물을 향한 스승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 대학 교수는 책을 여러 권 구입한 뒤 벽지의 학생들에게 보내 달라고 화렌 센터에 요청하면서 스승님의 이 책이 학생들의 인성 계발과 발달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화렌 센터가 DVD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을 학교에 기증할 것을 알게 된 양 교장은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된 DVD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선생님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강당에서 상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쉐티엔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승님의 새 책을 읽고 쓴 독후감.

스승님의 신간이 대중들에게 널리 환영받다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장화] 최근 장화 센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읽을 수 있도록 여성 단체, 라디오 방송국, 각급 학교, 지역 도서관, 양로원, 절, 야영장, 채식 식당, 장화 현 현장 등 16개 기관과 단체에 이 책을 기증했다. 책을 받은 곳마다 매우 좋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학교 도서관은 이렇게 교육적 가치가 큰 베스트셀러 도서를 무료로 기증받게 된 것에 더욱



기뻐했다.

칭수이옌사(淸水巖寺) 운영위원장 샤오슈메이(蕭秀梅) 여사는 책을 받고 나서 새나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자비롭다고 말하며 이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 방문객들이 읽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절 또한 그 지역의 야생 조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다. 샤오 여사는 국제협회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함으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늘 감명받고 있다고 했다.

장화 센터 동수들은 이 세상에 은총을 내려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담긴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우리 모두 평화로운 한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으리라 믿는다. 🍁



신의 은총으로 충만한 중양절

자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자이] 올해 중양절(음력 9월 9일, 경로의 날)은 10월 19일이었다. 채식 간식과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해 자이 시 보린(博仁) 양로원을 방문한 자이 센터 동수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의 날을 보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 전단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은총이 가득했던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동수들이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영적인 선물을 보린 양로원에 기증하다.

포즈 독서회 회원들과 스승님의 신간을 나누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5일, 자이 센터는 포즈(朴子) 시 진전(金鑣) 도서관의 초청으로 포즈 독서회에 스승님의 새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소개하게 되었다. 은퇴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포즈 독서회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선정한 책 한 권을 읽은 소감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 ‘마지막 날까지 배우며 산



다'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평생 교육의 진정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독서회 회원은 원래 22명뿐이지만 이번 책 소개 소식을 듣고서 38명이 참석했다.

동수들은 참석자들에게 스승님이 해 오신 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사랑의 길을 걷다' 비디오를 상영했다. 이어서 한 사저가 나와서 책 표지 디자인부터 탁월한 내용, 흥미로운 삽화와 거기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며 독서회를 이끌었다. 사저는 8월 24일에 있었던 스승님과 포모사 독자들 간의 화상회의 일부를 보여 줌으로써 스승님이 이 책을 발간하신 주된 목적과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번 모임을 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동물 보호의 이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독서회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번에도 와서 채식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곧장 요청하기도 했다. 🍁



포즈 독서회 회장인 세 씨의 환영 인사.



중국

환경을 보살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


중국 간쑤 성 동수 (원문 중국어)

[간쑤] 간쑤(甘肅) 성 란저우(蘭州) 지역 동수들은 최근 '어머니 강'(*주)을 보호하기 위해 황하(黃河) 풍경선 연안 지구에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는 두 길로 나누어 동쪽으로는 중산교(中山橋), 서쪽으로는 황하교(黃河橋) 남쪽 지역까지 가서 일했다.

우리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았다.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다가와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 아마추어



기자는 아주 감격한 모습으로 말했다. “여러분의 행동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행동은 작은 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큼니다. 란저우의 모든 시민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 위생은 분명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주: 황하와 양쯔 강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중국인들을 길러 왔기에 ‘어머니 강’으로 불린다. 

캐나다

2007년 밴쿠버 건강 쇼

밴쿠버 뉴스그룹 (원문 영어)

[밴쿠버] 10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서 ‘건강 쇼(Health Show)’가 열렸다. 지역 동수들은 부스를 임대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놀라운 소식과 명상·채식의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우리가 전시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를 보고 신실한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전시대를 찾아와 좀더 많은 정보를 문의했다. 동수들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설명해 주자 몇몇 사람들은 수행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남성은 생체자기제어 장치를 전시한 한 부스에서 건강 상태는 양호하나 삶에서 영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 우리 부스로 왔는데, 동수들이 명상의 이로움과 채식·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자 매우 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수백 권의 견본책자, 수천 장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및 ‘대안적인 삶’ 전단과 가방을 배포했으며, 모든 이들이 매우 감사해하며 받았다.

이 행사에 참여한 2백 곳 이상의 영리·비영리 회사와 단체들 가운데 많은 단체가 자비로운 채식 생활 방식과 환경 보호를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전시회 분위기는 매우 평화로웠고, 많은 전시회 참가자들이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주제를 표명했다. 수많은 비영리 영성 단체들이 대중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영성의 개념이 충





체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대단히 흐뭇했다. 🍁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healthshows.com/vancouver/>

칭하이데이 14주년 기념 행사

몬트리올 뉴스그룹 (원문 영어)

[몬트리올] 어느 맑은 가을 일요일, 몬트리올 동수들과 퀘벡 동수들은 몬트리올 시내에 있는 '위안(緣)' 채식 식당에 모여 '칭하이데이' 14주년을 경축했다. 동수들은 2주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해 지역 내 매체와 지지자들, 정치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영광스럽게도 자치 도시인 빌러레이(Villeray)·세인트미셸(Saint-Michel)·공원지구(Parc-Extension) 시장인 애니 샘슨(Annie Samson) 여사와 측근들, 중국어 프로그램인 '중국의 소리(La Voix de Chine)' 사장 루쓰 쿠 램(Ruth Koo Lam) 여사와 그녀의 남편 베니 램(Benny Lam) 씨, 그리고 지역의 어울락 명사들이 참석했다. 아름답게 장식된 식당은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전시된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보고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상에 펼쳐진 천상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스승님과 그 천부적 재능에 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모든 동수와 손님들은 맛있는 채식 향연을 즐기며 사형사저들의 공연을 감상했다. 신께 바치는 아프리



카 노래와 프랑스어로 된 깨달음의 노래가 공연되었고, 어린이들도 한껏 재능을 펼치며 모든 이들의 기분을 고조시켰다. 행사 내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상영되었는데,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부터 '수

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새로운 10개 위성으로 방송된다는 발표에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 경축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해 주신 신의 자비로운 안배에 감사드린다. 🍁

토고

로메 센터 10주년 기념 행사

로메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로메] 10년 전인 1997년, 서아프리카 토고의 로메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날은 바로 10월 25일 '칭하이데이'였다.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이날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사랑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내내 동수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홍보, 관음법문 부스 설치 등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동수들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식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 게임도 방송했다. 퀴즈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들의 호응이 매우 커서 방송국 측은 이 프로그램을 한 주 더 하기로 했다. 가장 인기 있는 TV 채널 중 한 곳에서도 스승님 강연과 우리 협회의 인도주의 활동을 소개했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한 부스가 로메 중심가의 우리 경서 유통처 앞에 설치되어 많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대단적인 삶' 전단·뉴스잡지·견본책자들도 배포되었다. 스승님의 천상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안에서는 스승님의 강연이 계속해서 상영되어 평화롭고 고양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10월 27일 토요일, 동수들은 로메 공립병원 소아 병동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 부모와 병원 직원들을 감동시켰다. 마지막 날, 로메 센터 사형사저들은 초대한 손님들과 함께 해변에서 야유회를 갖고 이번 경축 행사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맛있는 채식 음식을 즐기고 천상의 아이들처럼 즐겁게 춤추며 놀았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동수들은 신의 힘을 믿는 걸 배우게 되었고 사랑하는 스승님의 강력한 은총을 다시 한 번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 모두 스승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관음가족 모두 즐거운 '칭하이데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몽골

몽골 대초원으로부터

울란바토르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울란바토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1일, ‘칭하이데이’를 경축하는 ‘몽골 대초원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콘서트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노민 공연장(Nomin Entertainment Hall)’에서 개최되었다. 공연자들 중에는 게렐트 밤바(Gerelt Bambar, 빛의 햇불이라는 뜻)라는 청년 그룹과 국제협회 회원, 예비 입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들 가장 아름다운 몽골 전통 복장을 입었으며, 몽골의 전통 장가(長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서부터 무용단의 민속춤 공연, 우아한 발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춤과 음악이 공연되었다. 손님들은 공연자들 가운데 저명한 학자, 시인, 유명한 공연 예술가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국제협회의 열성적인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즐거워했다. 젊은 동수들이 공연한 연극 ‘스승님이 몽골에 오신다’는 매우 훌륭했다. 콘서트 분위기는 너무나 흥겨웠고 모두의 얼굴은 다른 경지로 고양된 듯 행복감으로 빛났다. 스승님께 헌정된 이 콘서트를 통해 몽골 동수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과 사랑을 칭하이 무상사께 전했다.



공연장에는 국제적인 요리들로 차려진 풍성한 채식 뷔페도 제공되었다. 우리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몽골 사회 내에서의 관음 가족의 성장과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연계 활동을 마련했다.

10월 25일 협회 회원들은 가장 유명한 TV 채널 두 군데를 초대해 ‘칭하이데이’와 사랑하는 스승님을 소개했다. 이 뉴스는 몽골 전역에 방송되었고, 그와 함께 나라 전체에 스승님의 축복이 전해졌다. 🍁



주요 연락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i@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70-7518-5827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등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 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께

매일 무한한 방법으로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
지고한 사랑과
끝없는 베푸심으로
온 우주를 고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총을 받는 중생이 늘어날수록
우리 지구는 더욱 평화롭고 평온한 곳이 됩니다.
"칭하이데이를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미국 뉴저지 센터 제자들 드림

칭하이데이를 맞아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당신은 우리의 밤을 밝혀 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낮을 밝혀 주시고
당신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삶을 밝혀 주시네요.

당신은 우리의 밤에 기쁨을 가져다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낮에 기쁨을 가져다주시고
당신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시네요.

당신은 우리의 밤에 사랑을 가져오시고
당신은 우리의 낮에 사랑을 가져오시고
당신은 온갖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가져오시네요.

사랑하는 스승님의 지고한 사랑과 은총에
수천 번 수만 번 감사드려요.

행복하고 축복 받은 칭하이데이가 되시길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5일
케이프타운 센터 동수 일동 올림





특별 보도

칭하이데이 14주년 기념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매년 10월 25일에 기념되는 ‘칭하이데이’는 그해의 가장 즐거운 날 중 하나이다. 14년 전, 당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 프랑크 파시(Frank Fasi) 시장에 의해 제정된 ‘칭하이데이’는 그의 말대로 “많은 이들의 삶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준” 스승님의 자비와 무아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칭하이데이’는 우리 삶에 현존하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경축일이다. 올해는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는 축하 메시지가 물밀듯이 쏟아졌다. 필리핀 국립문화 예술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세실 귀도테 알바레즈(Cecile Guidote Alvarez) 여사가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왔고 호놀룰루 시장실에서도 축복이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세계 각지의 센터 동수들은 함께 모여서 채식 다과회를 즐기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칭하이데이’ 특별 방송을 시청했다. 이 특별한 날에 스승님은 선행사에 참석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인내,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두 차례의 포모사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주셨다. 하나는 타이베이에서 있었던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신간 발표회였고 다른 하나는 포모사의 저명한 언론인과 가진 인터뷰였다. 이 날은 스승님을 기려 제정된 날인데도 스승님은 이처럼 모든 존재들을 고양시키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쉬지 않고 애쓰셨다.

이렇게 기쁜 ‘칭하이데이’ 14주년을 맞아 현 시대의 위대한 모범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위대함을 찾도록 일깨워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존경을 담아 축원 드린다. “사랑하는 스승님, 만수무강하세요!” 스승님의 사랑 어린 인도와 자비, 은총으로 이 세상이 조화와 평화를 함께 나누는 세상으로 계속 진보하기를 기원한다. 🍁

전세계 ‘칭하이데이’ 특별 행사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JAR406.php>

‘칭하이데이’ 14주년 특별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406.php>



파 리 선 상- 영혼을 위한 영원의 시간

영국·프랑스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영어)



8월에 파리 선행사가 있는 뒤 두 달 만인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5부터 27일까지 유럽 동수들은 파리 센터에서 또 한 번의 선행사를 가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번 선행사는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과 함께 ‘칭하이데이’를 경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스승님을 다시 뵈 수 있게 된 것이 거의 믿어지지 않았다.

파리의 가을 밤은 꽤 쌀쌀해지고 있었다. 선행사가 시작되기 전, 스승님은 자상하게도 파리 센터에 전화해 이번 선에 참가할 동수들을 위해 난방을 준비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임시 화장실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셨다. 10월 24일, 스승님이 도착하셨다. 늘 그렇듯이 스승님은 다 큰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과 사탕을 잔뜩 가져오셨고, 우리 또한 늘 그렇듯이 생전 초콜릿도 못 먹어 본 사람들처럼 너무나 잘 먹었다.



다음날, 스승님께선 복숭아빛이 도는 부드러운 드레스 차림으로 전신에 빛을 발하시며 명상 홀에 오셨다. 스승님의 눈은 사랑과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방송 화상회의가 곧 시작되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 신간 발표회가 열리고 있는 타이베이 행사장에 스승님의 영상이 나타났다. 화상회의에서 스승님과 포모사의 여러 동물 단체에서 온 귀빈들은 열성적으로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고 동물을 보호할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동물 학대를 멈추고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스승님은 나가셨다가 잠시 후에 반짝이는 오렌지빛 드레스 차림에, 기품 있고 자연스럽게 올린 머리에 작은 난꽃을 꽂은 모습으로 다시 들어오셨다. 곧이어 포모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TV 뉴스 진행자와 연결해 단독 화상 인터뷰를 하셨다. 스승님은 그 아나운서한테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고, 관음법문과 채식에 관한 질문, 외계인과 우주, 심지어는 스승님의 전생과 히말라야에서의 구도 여정에 관한 그녀의 사적인 호기심에도 인내심 있게 답해 주셨다.

그 아나운서가 화성에 대해 물었을 때, 스승님은 그 행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으나 기술이 도덕과 영적인 가치보다 우세하게 발달하는 바람에 이른바 ‘문명’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만일 지금 우리 인류도 상황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지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스승님과 함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칭하이데이’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스승님은 프로그램을 보시며 무척 즐거워하셨다. 스승님께 3단 축하 케이크를 자르시도록 부탁드렸을 때 행사는 최고조에 달했다. 순식간에 먹음직한 채식 케이크와 과자, 달콤한 무알콜 샴페인과 주스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것에 서로 축배를 들며 이 특별한 ‘칭하이데이’를 지상에 선사한 천국의 축복을 찬양했다.

이어지는 이틀 동안 스승님은 더욱 화려한 드레스와 천상의 보석을 하시고 나타나 우리에게 영적인 감로수뿐 아니라 천국의 시각적 향연을 베풀어 주셨다. 다른 많은 모임에서처럼 스승님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비로운 성인에게서 현자의 돌을 받은 가난한 장인(匠人)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돌은 어떤 쇠든지 금으로 바꾸어 주어서 장인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돌이었다. 그러나 장인은 달이 갈수록 비싸지는 쇠덩이를 보며 살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석 달의 기한이 지나 마법의 돌이 다시 성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장인은 예전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처지로 남게 되었다.

스승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동수들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돈이나 여타 다른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이 고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만다. 스승님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전세계에 봉사하는 일이므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선행사 기간 중, 스승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 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스승님은 그것을 읽어 보신 뒤 당신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하셨다. 정말 ‘칭하이데이’를 축하해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스승님은 동물들에 관한 이 책이 인류에게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며, 성탄절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직업 가수, 음악가인 동수들이 스승님께 아름다운 노래들을 바쳤는데, 스승님은 몹시 좋아하시며 가수가 되기를 꿈꾸었던 10대 시절을 떠올리셨다.

또 한 번, 스승님은 밀봉된 봉투를 열어 안거하시던 기간에 적어 놓았던 놀라운 메모를 우리에게 공개하셨다. 스승님이 천국의 비밀 방에서 가져오신 그 우주의 진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낮을 잃었고 이것들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임을 깨달았다.

마지막 날, 스승님은 우리를 서너 번 보러 나오셨다. 스승님은 빛과 소리에 관한 수행을 암시하는 루미(Rumi)의 시를 읽어 주시며 루미는 생전에 관음법문을 가르쳤던 높은 등급의 스승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뒤 스승님은 우리와 많은 농담을 나누셨다.

스승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언제 그렇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유난히 빨리 지나가 버린다. 하지만 언젠가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님을 자주 뵙지는 못해도 우리 모두 같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항상 내면으로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

선행사 기간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장을 보고 청소하고 요리를 해준 사형사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들 중 몇몇은 일이 너무 많아 스승님과 함께 앉아 있을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자양분이 될 이런 귀중한 순간들을 허락해 주신 신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

천국에 있는 듯했던 파리 선행사

알렌카 사저 / 슬로베니아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4일 저녁, 나는 침묵 선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파리 센터로 갔다. 다른 사형사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매우 기뻐고 물론 신이 허락하신다면 스승님을 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나는 파리에 가기 전 스승님의 책 『쉽게 수행하는 비결(Effortless Spiritual Practice)』을 읽으며 “신이시여, 선행사기간에 세상만사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하고 조용히 신께 기도드렸다. 신은 나의 소망을 들어주셨고 그 이상으로 천국까지 가져다주셨다.

센터에 도착하자 나는 천막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님이 도착하셨다는 멋진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아침 좀 춥긴 했지만 나는 “여기에 있으면 스승님께 좀더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데보다 나아.”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스승님께서 포모사와 화상회의를 하셨다. 스승님은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곳저곳 우리를 보러 다니셨다. 여느 때처럼 스승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으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의상이 내게는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다. 노란색 옷이었는데, 스승님은 수백만 개의 태양을 한데 모아놓은 것만큼이나 밝은 빛을 뿜어 온 우주를 비추셨다.

천막 중앙에 스승님께서 강연하시는 방이 있었다. 스승님은 이 방으로 오실 때마다 모든 이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한 바퀴 돌곤 하셨다. 어느 날, 한 사저가 내게 스승님이 강연하시는 방에 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냥 있던 자리에 있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저는 전능하신 분을 뵈기

회인데 육신의 편안함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며 나를 재촉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갔는데 내가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은 아주 안정되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신이 나를 어디에 앉히시든 그저 즐길 따름이었다. 잠시 후 스승님이 오셨다. 스승님은 시를 읽어 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모든 사형사저들이 스승님을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며 그 방에 가서 앉았다.

이번 선행사의 분위기는 천국 같았다. 모든 이들이 아주 훌륭하고 다정했다.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것처럼 멋진 선행사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천국을 보여 주신 스승님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조용히 선도하는 유럽 도시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문제의 기원은 다분히 지역적이다.”

유럽연합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유럽 캠페인(Sustainable Energy Europe Campaign)’

페드로 발레스테로스 토레스(Pedro Ballesteros Torres) 간사

많은 유럽 도시들이 환경 보호를 지역적인 책임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실용적이고도 효과적인 계획들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해 조용히 선도하며,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목표 이상으로 나아가 전세계 환경 운동을 격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스웨덴 남부에 있는 작고 조용한 도시 **벡세(Växjö)**이다. ‘녹색’ 휴양지가 된 이곳은 전세계 정치 지도자, 과학자, 사업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유럽연합의 ‘유럽 지속 가능한 에너지상(Sustainable Energy Europe Award)’을 수상한 바 있는 이 도시의 대단히 성공적인 성공적인 환경 사업에 존경을 보내고 그로부터 큰 깨우침을 얻는다.

벡세의 환경 보호 노력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의 공업과 농업으로 심하게 오염된 인근 호수들을 정화하는 것을 계기로 이 도시의 환경 여정이 펼쳐졌다.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에는 획기적으로 30%까지 감소돼 세계 연간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3,236kg을 훨씬 밑돌고 있다. 벡세는 1993년 대비로 2010년까지 50%, 2025년까지 70%를 감소시켜 화석 연료가 없는 도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도시의 난방·동력 발전소이다. 그들은 석유 대신 지역 목재업에서 나온 목재 폐기물을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 과정에서 가열된 냉각수를 지역 난방에 사용한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나온 재는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 거름으로 삼는다.

1994년 벡세는 전체 가로등을 절전형 전구로 바꾸기 시작했다. 시 당국은 2009년까지 이 사업을 완수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천 톤가량 감소시킬 계획이다.

화석 연료의 대안

벡세 시의 대중교통 사업 역시 화석 연료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일환으로 지역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내 어디서나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우대 조건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

탑타워 테크놀로지사(Top Tower Technology Co., LTD)가 만든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의 실례.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차를 구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의회의 보조를 받아 첨단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벅세 시 택시들은 주행 거리를 20% 단축했다. 위성으로 택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 장치 덕분에 최단 거리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택시 기사들에게 '친환경 운전' 강자를 실시해 연료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며, 택시 회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에탄올 차량, 바이오가스 차량을 운행한다.

도시 전 지역에서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개인 주택에 기름 대신 태양열 패널과 나무 화로를 설치하는 개인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생 기숙사에 개별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순수 목조식 아파트로 된 주거 지역을 새로 건설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벅세 시는 목재 산업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목재 생산과 수송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물론 주민 8만 명의 이 작은 도시만 지구 차원의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6년, **스톡홀름**은 유럽에서 발의된 제우스(ZEUS: Zero and low Emission vehicles in Urban Society, 도시 사회 내 배기가스 무배출·저배출 차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그 도시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선두로 하는 청정 차량 운행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여기서 친환경 차량이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거나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이 안 되는 차량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와 경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연료업계와 유럽연합과 공조를 취하며 바이오 연료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중앙 정부, 비정부 기구,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청정 차량 구매자들에게 장려금과 세제 방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제 스톡홀름 시의 청정 차량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나 된다. 유럽에서 청정 차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스톡홀름은 연간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항구 도시 **예테보리(Göteborg)**도 보다 푸른 지구를 만드는 여정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보통 대부분의 선박은 선박에 장치된 보조 디젤 엔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방식으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예테보리 시는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정박 중인 배에 동력을 공급하는 육상 동력 공급 체계를 개발했다. 이로 인해 항구 주변 지역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에서 97%까지 감소했다! 이 계획은 그 탁월한 환경 보호 업적으로 2004년 유럽위원회가 수여하는 '청정해양상(Clean Marine Award)'을 수상했다.



더 깨끗해진 도시, 스톡홀름. (사진: 해리핀 [Harryfn], 출처: Dreamstime.com)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현명한 선택들

덴마크 **코펜하겐** 시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믿을 만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폐기 열에너지에서 97%의 열에너지를 확보한다. 이 시스템은 1984년, 5명의 시장이 메트로폴리탄 코펜하겐 열전도회사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육지 가정에 동력을 공급하는 해상 풍력 발전소. (사진: 로딕스[Rodiks], 출처: Dreamstime.com)

(Metropolitan Copenhagen Heating Transmission, CTR)와 협력해 수립한 것으로 CTR과 계열사인 VEKS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천연가스와 바이오 연료(짚과 목재)로 석탄을 대체한 열·동력 발전소로 결합된 이 시스템 덕분에 가구당 연평균 1,400유로를 절약하게 됐고 매년 203,000톤에 상당하는 석유, 혹은 665,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코펜하겐 시는 총 용량 1억 6천만 와트인 80개의 풍력 터빈이 설치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 풍력 발전소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면 덴마크의 15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덴마크 총 전기 소비량의 2%를 충당하기에 족하다. 해상에 설치된 터빈은 내륙에 설치된 터빈보다 전기를 1.5배 더 생산하며 이 설비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6만 톤 감소했다.

보다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신체-정말 수지 맞는 사업!

이 외에도 코펜하겐 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환경을 제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1995년 코펜하겐은 도심 전역에 120개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사람들이 자전거를 쓰고 되돌려주는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 후원금과 광고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이 사업은 비영리 조직인 ‘코펜하겐 시 자전거 재단(The City Bike Foundation of Copenhagen)’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재소자와 실업자들에게 도로를 관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주민의 36%가 자전거를 타고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데다 2015년까지 그 비율을 50%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코펜하겐 시는 진정 ‘자전거 이용자의 도시’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5월에 벨로브(Vélo'v) 계획이 시작되었다. 선불 회원 카드로 1유로를 내면 일주일, 5유로를 내면 일년 동안 시내 전역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리옹(Lyon)과 빌뢰르반(Villeurbanne) 시 전역에 위치한 350여 곳의 자전거 대여소에 3천 대가 넘는 자전거가 있다.

2007년 7월에 시작된 파리 ‘벨리브(Vélib)’는 규모만 좀더 클 뿐 사실상 벨로브의 복사판이다. 15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여점이 750군데가 넘어 총 10,600대의 자전거가 있는데,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파리 시장은 이 벨리브 사업으로 2020년까지 도시 교통량이 40%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사회 자전거 사업은 스톡홀름·바르셀로나·런던·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런던은 ‘도심교통혼잡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평일 오전 7시부



벨로브 사업에 이용되는 자전거. (사진: 자크 [Jakezc], 출처: Dreamstime.com)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터 오후 6시 사이에 혼잡 구역 내 공공도로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에 8파운드의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7년 2월에는 혼잡 구역이 두 배인 38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 세계 최대가 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앞서 부과제가 실시된 지역의 경우, 교통량이 20%가량 감소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하루 7만 5천 대의 차량이 감소된 것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에서 30%, 즉 6만 톤 감소한 것이다. 자가 운전자들은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됐다.

2007년 8월에는 스톡홀름이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교통혼잡비 부과제'를 도입한 도시가 되었다. 2006년에 실시한 7개월간의 시범 운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14%, 교통량은 22% 감소했다.



교통혼잡비 부과제를 통해 도심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런던. (사진: 스티븐 핀[Stephen Finn], 출처: Dreamstime.com)

지역 차원에서 환경 보호 운동을 펼친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는 **바르셀로나**의 태양열 사업이다. 2000년 태양열 조레(STO)를 시행한 최초의 유럽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모든 신축 건물, 보수 건물, 용도 변경 건물에서 사용되는 온수의 60%를 태양열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조례는 개인 건물, 공공건물 모두에 적용되며, 2,800시간이나 되는 도시 연평균 일조 시간을 활용하도록 제정되었다. 바르셀로나 에너지국(Barcelona Energy Agency, BEA)의 관리 하에 이 조례를 실행한 덕분에 연간 250억 와트가 넘는 전력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인 전역의 십여 개 도시가 이 사업에 동참해 현재 형태는 유사하나 시행 절차가 덜 까다롭고 덜 엄격한 규정을 국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제간의 협력과 실천, 그리고 각국의 전체 국민들의 협력과 실천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문제는 지방에서 기인한 것이며, 각급 정부, 각종 단체에서 지구상의 모든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용감하게 책임지고 있는 이들 유럽 도시에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우리 모두 그들의 행동과 정신에 깨우침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 멋진 지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실천하길 희망한다. 🍁



교통량을 줄이고자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권장하는 파리. (사진: 데이빗 휴즈[David Hughes], 출처: Dreamstime.com)



바르셀로나의 거대한 태양열 패널. (사진: 앤드류 챔버스[Andrew Chambers], 출처: Dreamstime.com)

검손과 무아의 삶을 사는 천국에서 온 다리 건축가

스코트 리브/ 포모사 신주 (원문 영어)



토니 루티만(오른쪽) ♥♥♥♥♥♥♥♥♥♥과
그의 친구 월터 야네즈, ♥♥♥♥♥♥♥♥♥♥

전해 지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의 성심에 보답하듯 신은 그에게 한 천사를 보내셨다. 에콰도르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네덜란드인 기술자가 이 소년에게 다섯 달에 걸쳐 간단한 다리 건설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후에 그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수공으로 현수교를 건설하는 법을 발명함으로써 ‘천상에서 온 다리 건축가’가 되었다.

그가 간단한 다리 건축법을 배운 후 신은 또 다른 천사, 월터 야네즈(Walter Yañez)라는 에콰도르인 용접공을 보내 그의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 주셨다. 그들은 친구가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동반자’로서 함께 남미 전역을 누볐다. 이들의 협력 관계는 점점 고귀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발전해 수년간 두 명의 봉사자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에 이르렀다! 다리를 지을 때면 언제나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토니가 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도 가져다주어 사람들이 좀더 독립적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도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토니는 세상사에 매우 현명해졌다. 그는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오지에 수백 개의 다리를 놓았는데, 일반적인 다리 건설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는 정부의 돈은 받지 않지만 그 일을 지지하는 개인의 재

20년 전인 1987년, 에콰도르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 스위스의 작은 산촌 마을에 사는 한 10대 소년은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TV를 통해 이 재난을 지켜보던 중 마음속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는 그곳을 도와주러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소년은 저금했던 돈을 털어 비행기표를 사고 이웃들의 기부를 받아, 마음이 이끄는 대로 홀로 남미행 비행기에 올랐다.

재해 현장에 도착한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약품과 식량이 강 건너편에



멕시코 베라크루스(Veracruz)에 있는 토니의 독특한 다리 가운데 하나,
테나리스(Tenaris) 철강회사에서 강철관을 기부했다.
(사진 제공: 테나리스)

정적 기부는 받는다. 그는 직접 아르헨티나·이탈리아·멕시코·에콰도르로 가서 기부자들에게 쓰고 남은 철강 파이프를 겸손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스위스 산악 케이블카 업체에게 중고 와이어로프를 얻어 오기도 한다.

2007년, 토니는 벤체(Ben Tre) 지방의 십만여 주민들을 도운 공로로 응우옌 민 쩌엣(Nguyen Minh Tret) 어울락 대통령으로부터 '3급 노동훈장(Third-grade Labor Medal)'을 받았다.

두 대륙에서 교량을 건설하면서 토니는 진정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생활은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바뀌어서 사흘 연달아 같은 침대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다. 그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안락한 생활도 없다. 세상을 돌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는 데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와 가방 하나가 그가 가진 전부이다. 그는 또한 직접적인 행동과 원조의 실제 상황, 정치와 물류, 사전 제작과 운송, 지역 사회와 가치, 공학과 건축 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요청 받는다. 토니가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어린 소년으로 이 길에 들어섰다는 걸 기억해 보라!



토니는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2002년, 캄보디아 있던 그에게 갑작스런 마비 증세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에 맞서 싸웠고, 일년 반 동안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한 끝에 회복되었다! 토니는 자신이 회복된 것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이 내려 주신 은총과 축복이라 여긴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그저 다음번 다리까지만 봅니다. 제게 미래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마저도 없어야 하죠.”

칭하이 무상사는 사심 없고 겸손한 행위로 고귀한 삶을 살라고 늘 우리를 일깨우신다. 자신의 마음을 따른 어린 소년이었던 스위스 태생의 토니 루티만(Toni Ruttiman) 씨는 그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는 명예나 돈, 개인적인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용감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마음이 그를 이끌며,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루려는 그의 바람이 그에게 힘을 준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리를 만드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이가 토니처럼 겸손하고 무아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분명 보다 나은 곳이 될 것이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빛나는 세계 자비상’**은 인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한 탁월한 노력과 빛나는 지도력을 표창하고자 칭하이 무상사께서 수여하는 영광으로서, 전세계의 정부·지도자·개인 자선가들에게 그들의 모범적인 선행과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찬사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달된다. 하트 평점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장려하기 위해 신이 보내시는 사랑의 상징이다.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로리 보스톤과 애니멀 에이커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제383회 뉴스 (원문 영어)

사진 제공: 애니멀 에이커스

‘애완동물’이라는 동물을 사랑한다면
‘저녁 식사’라는 동물들을 먹지 마세요.
~애니멀 에이커스~



농장 동물 보호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로리 보스톤(Lorri Bauston)은 ‘애니멀 에이커스(Animal Acres)’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애니멀 에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동물 보호소로 ‘동물들의 피난처이자 영혼의 안식처’이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5일, 애니멀 에이커스는 유명인사들이 대거 모인 모금 행사를 열었다. 여기에서 모아진 기금은 모두 애니멀 에이커스의 긴급 구조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행사에서 국제협회 대표는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보스톤 여사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함께 만 달러의 상금을 전달하며 애니멀 에이커스가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고귀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로리는 16세에 육식을 그만두고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으로 농장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열정이 시작되었다. 1986년 그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농장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를 공동 설립하고 18년 후에 비영리 조직인 애니멀 에이커스를 설립했다. 현재 애니멀 에이커스는 100여 마리의 구조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권장하고 농장 동물들의 실상을 이해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 행사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를 후원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동물 권익 옹호가인 제인 벨레즈 미첼(Jane Velez-Mitchell) 씨가 칭하이 무상사께서 보스턴 여사에게 수여하는 상장을 읽는 영광을 얻었다.

“.....우리 동물 친구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전 인류와 동물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한 귀하의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귀감이 되는 귀하의 영웅적 행동은 모든 중생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햇불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대신해 잔혹한 관행을 없앨 것을 열렬히 지지하고, 자비로운 삶의 개념을 널리 알리며, 동물들에게 천국 같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인류에게 헌신적이고 자애로운 모범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는 농장 동물 보호 운동의 선구자인 로리 보스턴 씨의 고귀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이를 기리는 바입니다.”

보스턴 여사는 스승님의 편지에 감동되어 눈물을 글썽였다. “무상사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다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자비심을 널리 퍼뜨리고자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을 해 오신 스승님 같은 분이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협회 회원으로부터 상과 만 달러의 상금을 전해 받은 보스턴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잔인하게 도살당하는 그날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100억 마리의 소와 돼지, 닭, 그리고 전세계 450억 마리의 동물들을 대신해서 이 상을 받겠습니다.” 그녀는 덧붙여서,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고 외친 지 21년 만에 동물 보호 운동에 대해 낙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10년간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로리 보스턴과 애니멀 에이커스에 축하를 보낸다! 애니멀 에이커스와,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단체들, 개인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농장 동물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고 미국 내 채식 제품의 판매가 미국 식품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되고 있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이 행사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383.php>

애니멀 에이커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animalacres.org/about.html>



스승님의 신간들을 훑어보며 기뻐하는 보스턴 여사.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환경 운동을 시작한 소년

미국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약 2년 전, 미국 일리노이 주 톨루카(Toluca)에서 한 사람의 환경 운동-알루미늄 캔 회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11세의 테일러 맥길리스(Taylor McGillis)였다. 테일러는 매일 도시의 거리와 시골길을 걸어 다니며 버려진 깡통들을 모았고 수많은 일요일 아침 일찍, 골프장에 버려진 깡통들을 주웠다. 나중에는 좀더 체계를 세워 깡통을 수거할 수 있는 상가 지역에 수거함을 설치했다. 올해 초, 그는 가족과 친구, 지역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16,277파운드 가 넘는 알루미늄 캔을 모았다. 그것을 팔아서 받은 9천 달러가 넘는 돈은 나중에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본부가 마샬카운티(Marshall County)에 짓는 새 집 현관과 창문을 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테일러의 선행은 결코 외면받지 않았다. 2006년에는 로드 블라고예비치(Rod R. Blagojevich) 일리노이 주지사가 수여하는 '환경보호청년 주지사상(Governor's Green Youth Award)'을 수상했고 2007년 4월에는 2007년 '환경보호청소년 대통령상' 지역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지역 언론은 그를 '알루미늄 캔 스카우트'라 불렀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29일,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일리노이 주 네이퍼빌(Naperville)에서 열린 아메리카 원주민 행사의 하나인 제13회 연례 추수감사제(Annual Harvest Pow-Wow)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테일러 맥길리스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당시 테일러가 모은 캔은 총 22,000파운드에 달했다.

테일러의 어머니는 추수감사제에 맞춰 시상식을 깜짝 행사로 준비했다. 추수감사제 주최측의 도움을 받아 진행자 중 한 사람이 테일러를 축하하기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 춤을 준비해 주었다. 보이스카우트 제복을 입고 자신이 받은 모든 배지를 단 테일러는 상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 수줍어하고 긴장했다. 하지만 스승님이 보내신 상장이 낭독되자 매우 감격했으며, 이는 그에게 갈채를 보낸 청중들도 마찬가지였다. 상과 더불어 국제협회는 그에게 2천 달러의 상금과 텐트, 침낭, 과자, 스승님의 출판물도 전달했다. 테일러의 가족들과 다른 이들의 반응은 대단히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스승님에 관해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문기도 했다. 행사 또한 아주 다채로웠다. 참석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 복장을 했으며, 동수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었다.

테일러는 보이스카우트 배지를 타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캔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테일러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의 노력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역 주민들도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테

일러가 앞으로도 환경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가길 바란다. 이런 그의 노력은 우리 지구와 다른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지구 환경을 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서 일한다면 많은 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다 널리 인식시킬 것이다. 🍁



테일러 맥길리스의 감사 편지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무척 특별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무상사님의 관대함과 아량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오신 벨마 킹 여사는 정말 멋진 대사이셨습니다. 당신이 주신 2천 달러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금은 대학 학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과 함께

생활 스카우트 테일러 맥길리스 올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테일러 맥길리스의 시상식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413.php>

빛나는 세계 자비상



스승님의 시기적절한 도움으로 유기견들의 몸과 마음이 따스해지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6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중국 내몽골 바오토크(包頭) 시에 있는 유명한 동물 애호가인 진단(金蛋) 씨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다. (진단 씨의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뉴스잡지 189호 '사랑의 물방울이 모여 떠돌이 개들을 구해 내다'를 참조하세요.) 대표들은 스승님을 대신해 진단 씨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과 함께 유기견 보호소의 환경이 좀더 개선되도록 상금 5천 달러도 전달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겨울이 점차 다가오는 겨울에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개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던 참이라면서 스승님께서 때마침 지원해 주신 것에 뭉클함이 기뻐했다. 그는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에 큰 감사를 표하면서 이 돈으로 보다 많은 유기견들을 돕고 자신의 보호소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번 보호소 방문을 통해 동물들의 생활 여건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에는 몇 안 되는 임시 우리에서 여러 마리가 북적대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개들이 제각기 나무로 된 예쁘고 튼튼한 개집을 하나씩 지니고 있었으며, 내부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행복한 개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단 씨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대부분의 개는 자애로운 사람들에게 입양되었고 아픈 개들만 좀 남았는데, 자신과 자원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 씨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내내 개들을 칭찬했다. 개들은 깊은 애정과 사심 없는 사랑을 지녔고 사람에게 아주 충실하며 그 외에도 일부 사람들에게선 보기 힘든 고귀한 성품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의 기적과도 같은 안배로, 이 지역의 한 채식



A photograph of a man and a woman standing together. The man, on the left, is wearing a black long-sleeved shirt and is holding a heart-shaped glass award. The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red blazer over a white turtleneck and is also holding the award. They are both smiling.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framed painting of a bird and flowers. On the table in front of them are some books and papers.

우리가 내뿜골을 떠난 다음날, 기온이 영하 4도로 떨어졌다. 스승님의 시기적절한 도움으로 이들 유기견들이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신의 축복 속에 이 유기견 보호소가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 보다 나은 보살핌을 제공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진단 드림





『사랑소런 내 인생의 개들』이
애독자들에게 신선한 흥분을 선사하다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특 집 기 사

칭하이 무상사께서 직접 집필하고 정리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에 포모사에서 정식 출간되어 여러 분야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데 이어 10월 25일(칭하이데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또다시 타이베이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스승님의 신간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중국어판을 공식 출간해 첫 발매를 시작했다.

이 날 행사장은 열렬한 독자들과 국내외 여러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스승님은 화상 연결을 통해 귀빈들과 함께 동물의 영성에 관해 말씀을 나누셨다. 필리핀 투게가라오(Tuguegarao)의 디오스다도 탈라마얀 대주교(Diosdado A. Talamayan D.D.)(사진 1)께서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차별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찬탄하는 서신을 보내오셨다. 탈라마얀 대주교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셨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틈틈이 읽어 보았는데, 이 책을 통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들을 사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개와 새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이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를, 특히 신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타이베이 시의회 의원인 리 칭위안(李慶元) 씨도 붓글씨로 “동물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 대우하라.”라고 쓰인 축하문을 보내 스승님의 신간 출간을 축하했다.



1



화상 연결을 통해, 귀빈들이 여러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신간 발표회 진행 모습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칭하이 무상사 신간 발표회.

입양한 동물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스승님

스승님은 수펏 앤젤스(Su-Pet Angels) 동물 영성 포럼에도 참가하시고 포모사 언론 매체들의 질문에도 기꺼이 답해 주셨다. 『조달청 공보』의 팡웨이룽(龐維榮) 기자가 스승님께 개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특





특 집 기 사



2

히 입양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던 개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물었다. 스승님은 처음엔 그 개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바로 최고의 의사에게 데리고 갔으며 같이 놀아 주고 사랑해 줬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럭키(Lucky)가 병이 나서 격리되어 있을 때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서 같이 놀아 주셨는데, 그 덕분에 럭키가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하셨다. 또 럭키가 처음에는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과일을 잘게 썰어서 먹였더니 나중에 과일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 밤이 되면 럭키가 무서워하지 않게 곁을 지켜주기도 하셨다고 하면서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개들은 내 침대에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땐 대어섯 마리와 같이 잡니다. 나중에는 개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바닥에서 자고 그들을 내 침대에서 재웠지요.개들은 매우 고귀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 대해 줘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3

행사 바로 전날, 포모사 주재 전임 아이티 대사인 소니 세라핀(Sonny Seraphin) 씨(사진 2)는 한 동수로부터 신간 발표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 전화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전화는 내가 수년간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전 칭하이 무상사님 앞에 서길 늘 원했었지요. 아니면 그분의 발치에서라도,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그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그분의 가르침이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4

타이베이 시 민정국 부국장 예제성(葉傑生) 씨(사진 3)는 스승님과 내빈 간의 대화에서 이 세상에 국경이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시는 스승님의 영향력에 큰 존경심을 표했다. “모든 이들이 스승님의 이런 정신을 본받을 수 있다면 이 사회와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5

동물은 신이 보내신 천사

포모사의 유명한 의사이자 동물 문학가인 두바이(杜白) 박사(사진 4)는 스승님의 신간을 읽고 난 후, 자신은 지난 21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날마다 개들과 함께해 왔는데, 개는 언제나 매우 직접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류를 돕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늘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반려동물의 삶과 죽음』에 담긴 생각들이 스승님의 이상과 아주 가깝다고 말했다. 두바이 박사는 동물들은 신이 보내신 천사이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같이 수행해 가는 존재이고, 동물의 사명은 우리가 성장해 지혜를 계발하도록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인데도, 우리는 이런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6



특 집 기사

‘유기동물의 집 기금회’ 이사장 왕리링(汪麗玲) 여사(사진 5)는 축사에서 책 속에 실린 모든 사진에서 뿔어져 나오는 사랑과 축복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하며 “무상사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엄마예요.”라고 덧붙였다. 왕 회장은 유기견들을 돌본 경험을 스승님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스승님은 그녀의 자비심을 칭찬하시며 즉석에서 미화 만 달러를 기부하시고 왕 회장에게 그녀가 돌보고 있는 7백여 마리의 개들한테 채식을 먹이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다.

‘타이완 동물(Animal Taiwan)’을 창설한 셴 매코맥(Sean McCormack) 씨(사진 6)도 유기견을 돌봐온 소감을 내빈들과 함께 나눴다. 스승님은 그의 자비로운 행위를 인정하시고 ‘타이완 동물’에도 미화 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고귀한 품성과 생명 교육에 관한 책

화원신성(花園新城) 단지 대표이자 독일문화센터의 문예 활동 큐레이터인 패트리샤 고트만(Patricia Kortman) 여사(사진 7)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유기견 보호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녀는 이들 버려진 친구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정신 의식도 동시에 고양되었다고 말했다.

‘포모사 동물보조활동·치료협회’의 사무장 허청첸(何承謙) 씨(사진 8)는 개들이 인간의 심리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로 우리가 근심에 싸여 있을 때, 개들은 강한 충성심으로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마치 제일 가까운 친구인 듯 우리 곁을 지켜주는데, 치유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는 스승님께서 이 책을 출간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는 한편 이런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화국제건강진흥협회’ 우보빈(吳博斌) 이사장(사진 9)은 수년간 채식을 장려해 온 경험을 함께 나눴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에서 스승님께에서 미화 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바 있는 ‘중화민국 동물복지·환경보호협회’ 류상란(劉香蘭) 이사장(사진 10)은 이번에 편액 한 폭을 전달하며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타이베이 시 동물위생검사소 옌이펑(嚴一峰) 소장(사진 11)은 스승님의 신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개들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귀한 품성과 생명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특 집 기사

포모사를 동물 사랑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자

포럼을 끝내기 전, 스승님은 포모사에 축복을 기원하셨다. 스승님은 유기견을 죽이기보다는 중성화 시술을 해주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나으며, 유기견을 포함한 모든 개들한테 침을 삽입하는 한편 정부는 애완견 주인들이 함부로 개를 버리지 못하도록 입법화해 유기견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다.



“포모사 국민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포모사를 동물 사랑 세계 제1위 국가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멋진 겁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스승님은 SETTV의 ‘포모사를 빛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천아린(陳雅琳) 여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셨다. 스승님은 인터뷰에서 구도 과정 중에 겪었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얻은 후의 내력, 공개적으로 법을 펼치게 된 연유, 포모사와의 인연 등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과일보』, 『중국시보』, 『연합석간』, 『조달청공보』와 같은 포모사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번 신간 발표회 소식을 보도했다. ETTV와 TVBS도 채식하는 개에 대한 뉴스를 방송했는데, 특히 TVBS는 스승님께서 개들과의 경험들을 담은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출판하시면서 개들도 인간처럼 명상과 채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린 개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식하는 개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해외의 사례를 인용해 채식하는 개들의 82%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평균 수명은 인간의 70세에 해당하는 12.6세로 채식하는 개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신간 발표회 소식이 『사과일보』, 『중국시보』, 『연합석간』, 『조달청공보』 등 포모사 주요 신문에 실린다.

스승님의 신간이 세계적인 호평을 받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출시되자마자 킹스톤 온라인 서점에서 비분류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10월 29일, 영문판 1권도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분야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고 1권과 2권 모두 별 다섯의 최고 평점을 받았다. 11월 11일, 더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스승님이 직접 쓰신 또 다른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영문판이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스승님의 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세상에 이처럼 소중한 선물



특 집 기 사

을 가져다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



수많은 애견인들이 자신들의 채식 개들과 함께 행사장 앞에서 '칭하이데이'를 축하하고 신간 발표회의 성공을 기원하다.



신간 발표회와 동시에 발매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구입하고 기뻐하는 독자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독점 웹사이트(중국어):

http://www.loveocean.org/dogs/index_ch.htm

언론 보도(중국어):

<http://www.loveocean.org/dogs/media.htm>

킹스톤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자료(중국어):

http://www.kingstone.com.tw/book/Book_abcissa4.asp?C1=%AC%EC%BE%C7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온라인 서점 주문(중국어):

<http://www.books.com.tw/exep/prod/booksfile.php?item=0010385258>

<http://www.books.com.tw/exep/prod/booksfile.php?item=0010385256>

아마존닷컴:

http://www.amazon.com/s/ref=nb_ss_b/002-8350592-0757662?url=search-alias%3Dstripbooks&field-keywords=the+dogs+in+my+life&x=9&y=17

종문·영문판을 구입할 수 있는 관련 웹사이트:

http://www.thecelestialshop.com/shop/advanced_search_result.php?keywords=in+my+life (영어)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동물은 우리 내면의 사랑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칭하이 무상사/ 2007. 10. 25. 포모사 타이베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신간 발표회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 대표자들, 여러 귀빈들, 필리핀 대주교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대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나는 이 책으로 모든 이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사랑의 힘이 일깨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신,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 사랑과 자비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 내면의 사랑을 생각할 시간이 종종 부족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랑을 발휘해 자신을 일깨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더 바쁘거나 잊어버린 탓에 이 내면의 사랑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일깨워 주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동물은 비교적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돕고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나 물질적 측면에서 말하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동물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영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영웅의 행동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면, 동물도 그에 보답해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동물을 돕는 게 아닙니다. 작고 약한 존재를 사랑해야 하니까 돕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영웅은 전쟁터에 나가거나 어떤 눈부신 위업을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웅의 자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개나 새, 혹은 다른 작고 연약한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사랑하면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할 때 자비심이 절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나 새, 혹은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잘 알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안아 주거나 바라볼 때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 사랑만이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사랑하고 예뻐하면 이런 사랑의 기운이 집 전체, 가족 전체에 충만해지고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은 분명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걸 보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서로 말다툼하거나 싸우고 있는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장 우리 마음도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우리 내면의 사랑이 발전하도록 도와주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분위기는 전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집집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위기가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이 세상도 멋진 곳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그렇습니다.) **동물의 영적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에게 무슨 분명한 도움을 주는지 어떤지는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그들은 우리가 자비심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질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개와 함께 앉아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보여 준다면, 곧바로 온몸이 매우 편안해질 것입니다. 몸까지 편안함을 느끼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전류가 온몸에 흐르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개는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을 돕습니다. 어떤 실험으로 그들과 통하거나 텔레파시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적 측면에서 육신의 느낌만 따져 보더라도 개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신은 인류를 돕기 위해 동물을 창조했다

성경에서 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 동물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자면 동물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학자들도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러



분의 정신이 즐거우면 여러분 집에 행운과 즐거운 기운을 끌어들리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니까요. 또 날마다 애원동물을 보면서 사랑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랑을 끌어들리게 되지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한다거나 개들이 여러분을 물지 않는다거나 하고 집안에 더 많은 사랑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돕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누구를 돕든 간에 모두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우면 상대방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보낼 테니까요. 우리가 도와주면 그 상대가 고마워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럼 우리 삶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기도는 감응이 있으니까요!

동물은 천국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면 그는 분명 천국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도와준다면 천국에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동물을 도울 때도 역시 천국에서 기록하고요.

어울락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량하고 개한테 잘해 주면 여러분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건널 때 개가 ‘멍멍’ 하고 크게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개들이 큰 소리로 짖어대면 깜짝 놀라서 악어와 뱀 등등이 가득한 강으로 떨어질 텐데,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한테 잘해줬다면 그 다리를 건널 때 그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여러분이 무사히 건너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게 사랑으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다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지요. 이게 그 전설의 의미입니다. 내가 거기를 건너 본 건 아니지만(대중 웃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의 말은 늘 이치에 맞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중: 예!)


고귀한 마음을 표현하라

이 이야기가 진실이건 아니건, 작고 연약한 동물들을 보면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면 영웅다운 넓은 도량이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고귀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마음이 발휘되도록 돕지요. 이는 부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동물 보호소나 그와 비슷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면 돈을 기부하거나 일을 해줌으로써 이런 기관들이 동물을 돌보고 동물들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 주도록 도움을 주면 됩니다. 🍁

뭘 잃어버린 사람 없소?

칭하이 무상사/ 2001. 4. 1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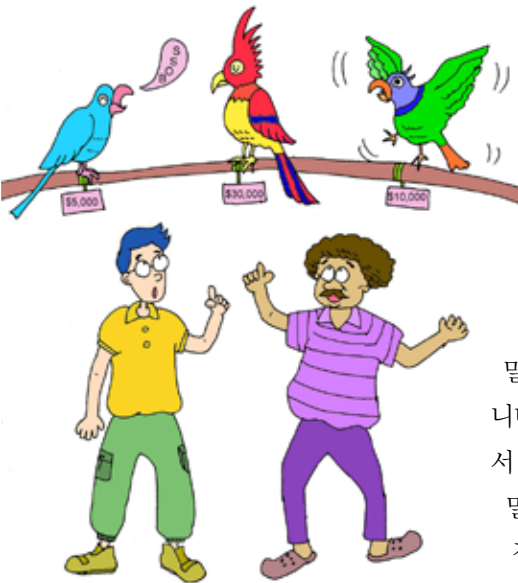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말했어요. “고무줄로 묶은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 잃어버린 사람 있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저요, 저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그 고무줄 가져가시오.” 




대장이나까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7.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4**



한 남자가 앵무새를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점에는 앵무새가 세 마리 있었는데, 첫 번째 앵무새는 5천 달러, 두 번째 앵무새는 1만 달러, 세 번째 앵무새는 3만 달러였어요. 그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 녀석은 왜 5천 달러나 하죠? 이런 앵무새 치고는 너무 비싸군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켰거든요.” 그러자 손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이 녀석은요? 뭘 할 수 있길래 이렇게 비싼가요?” 주인이 대답했지요. “말하는 거 말고도 춤을 춘다든지, 몇 가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러자 손님이 또 물었지요. “그럼 세 번째 앵무새는 뭘 할 줄 알아서 이렇게 비싼가요?” 상점 주인이 답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 앵무새가 말한대거나 춤을 춘대거나 휘파람을 분대거나 노래를 한대거나 하는 걸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두 마리 앵무새가 그를 ‘대장’이라 부르더군요.”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92/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2/jk1.htm>



동물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선물

칭하이 무상사/ 2007. 8. 24. 포모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우리가 동물들에게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을 구해 주면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어울락 속담은 사실입니다. 동물은 때로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행운을 가져다줍니다. 사업을 번창시키거나 건강을 호전시키거나 혹은 가정 생활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 좀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동물마다 가져다주는 선물이 다르니 조용히 그것을 느껴 봐야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재산을 다 잃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개가 매일 그를 따라다녀서 그 개를 거두어 기르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서 부자가 되었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전 재산이 그 개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을 수용할 큰 집을 지어 개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개가 그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개들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선사할 뿐 아니라 부도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오는 모든 동물은 반드시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천천히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책이나 과자 같은 걸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차츰차츰 내면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온갖 많은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의사소통할 줄 모른다면 그들이 가져다준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뒤로 갑자기 생활이 좋아졌다거나 사업이 번창한다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 개가 행운을 가져왔을지도 모르니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에게 있는 어떤 새는 아주 많은 돈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어느 새라고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대중 박수) 그 새를 입양할 때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이야 알게 된 거지요. 그 새가 집에 온 뒤로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소통이 된 후에서야 나는 그 새가 본래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새와 개, 동물을 돕는 데 들어갔지요. 나는 돈을 원해서 그 새를 입양한 게 아닙니다. 그 새를 아직 입양하기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가 무슨 돈을 가져다줄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습시다. 대개 동물들은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잘해 주는지 먼저 보고선(대중 웃음) 나중에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잘해 줄수록 그가 주는 선물도 더 커집니다.

동물들도 천상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동물들은 영적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보다도 높지요. 개나 새의 외양을 하고 있다고 평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사람으로 변해 주인을 도왔다는 옛날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께서 “내가 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 친구가 되고 너희를 돕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한 내 말이 맞는 것이지요. 게다가 나는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차츰차츰 나는 나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 다른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좋은 친구를 데려왔고 어떤 동물은 좋은 일꾼을 데려왔지요. 그들이 전화로 그 사람들을 불러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동물이 우리 집에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레 좋은 친구나 돈,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끌려 온다는 것이지요. 혹은 나의 생활이 갑자기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이전의 업장들, 어떤 사람들과 연관된 고리들이 갑자기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동물들이 가져다준 것입니다.

동물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기회에 『고귀한 야생』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면 그 비밀을 약간 말해 주겠습니다. (대중 박수) 원래는 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사이의 내적인 교류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개와 새에 관한 책에서는 정말 감히 다 쓰지는 못하고 아주 조금만 썼습니다. 본래는 새와 사람이 같이 사는 것에 관한 평범한 책을 쓸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함께 밥 먹고, 장난치고, 즐겁게 논다든지 하는 것들이지요. 영적인 교류 같은 건 쓸 생각이 없었는데 간혹 어쩔 수 없어 약간 써야 했습니다.

일부 야생 동물들도 우리를 돕습니다. 예를 들면, 집 근처에 있는 야생 동물에게 때로 먹을 것을 좀 가져다주면 그들도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의사소통을 못해도 그들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물론 소통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전에 백조 한 마리와 내면으로 소통한 적이 있는데, 그는 내가 시간이 없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해주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들을 그 백조와 소통을 한 후 생각이 났고 그러고 나서야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정말 모든 동물은 인간을 돕기 위해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동물은 인류의 조력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도와줄 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그들이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돕든 돕지 않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들과 서로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정말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지요. 동물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사랑으로 거리의 동물들을 돌보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관념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포모사에서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여러 민간 단체와 사회 대중으로부터도 공개적인 옹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우리 동물 친구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지룽 시 당국은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집 없는 개들을 입양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성화 수술 보조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보조 금액이 전보다 몇 배나 늘어나 포모사 북부 지방 가운데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이 외 타오위안 현 농업국과 동물방역소도 동물 사랑과 환경 보호의 관념을 전파하고자 ‘오래도록 나를 사랑해 주세요-2007 타오위안 반려동물의 날’을 공동 개최했다.

16년간 채식 해 온 타이베이 현의원인 린홍츠(林鴻池) 씨는 여러 채식 공공 채식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 하라고 열심히 권장하는 것 외에 동물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 기간 동안 입양된 지 얼마 안 되는 유기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 진료를 실시했다. 무료 건강 진료 현장에서는 수의사들이 개들에게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무료 상담과 기생충

약 등을 제공한다. 동물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그는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마음에 사랑을, 개와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타이베이 현 생명보호협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인 없는 개와 고양이를 구조하는 최초의 단체로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개와 고양이 9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회는 구조된 모든 개와 고양이를 수용, 보호하고 전문 수의사의 치료와 중성화 수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 동물들에게 행복한 가정 찾아주기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료이다. (생명보호협회 웹사이트: <http://www.lco.org.tw/info/view.asp?id=1>)





떠돌이 개들이 보다 많이 입양될 수 있도록, '중화민국 동물복지·환경 보호협회'는 동물을 수용하고 입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정류장'을 타이베이 지하철역에 개설했다. 이사장 류향란(劉香蘭) 여사는 '사랑의 정류장'을 통해 지하철과 상가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천후 입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기견의 입양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정류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정류장' 설비와 위생 기준은 지하상가 기준을 따르며 독립적인 에어컨 시설을 갖추고 있어 '특급' 동물 입양 센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작가이자 애견인인 주톈이(朱天衣) 씨는 떠돌이 개들의 과잉 번식을 막기 위해 많은 의사들과 협력해 '순회 무료 중성화 수술 연맹'을 설립해 타오위안 현 각 지역에서 무료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성과를 보고 그들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자이의 실업가인 리허추안(李和川) 씨는 지난 8년 동안 독자적으로 5천만 NT(한화 약 17억 원)가 넘는 돈을 출자해서 3천 마리가 넘는 개들을 입양해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칩을 삽입하고 개 전용 '개별기록부'를 만들었다. 기업체 사장인 리허추안 씨는 퇴근 후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유기견을 위해 쏟고 있다. 그는 입양한 개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종종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사료나 남은 음식을 싣고 자이 지역의 주요 공원들을 돌며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한다. 또한 개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직원을 고용해 정해진 시간마다 개들이 모이는 곳에서 밥을 주게끔 한다.



♥♥♥♥♥♥♥♥ 67세 노인인 황추구이(黃秋桂) 여사는 20여 년 동안 사랑으로 100마리가 넘는 개들을 입양했다. 그녀는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시장에서 음식을 얻어 와 개들에게 먹이고, 씻기고, 소독해 주며 그들이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

♥♥♥♥♥♥♥♥ 타이중 현 샤크(沙鹿) 진에 사는 허우상청(侯祥城) 씨와 그의 아내 린메이링(林玫玲) 여사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떠돌이 개들을 입양했다. 그 부부는 이 개들을 돌보고자 집 세 채를 팔아서 비용을 충당했고 지금은 그들을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차에서 살고 있다. 비록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 이 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들은 동물들이 어떠한 가식도 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유기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





또 하나의 언어 동물의 세계에서 보내온 메시지

파스칼 도지테 & 케옵스와의 단독 대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제365회·366회·367회 정리
(원문 프랑스어)

“여러분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우리 모두의 집인 이 지구에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끝없는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과 주변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해 온 것들을 치유하는 일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케옵스, 『또 하나의 언어』에서

암 개 케옵스(Khéops)와 그의 인간 반려이며 평생 채식인인 파스칼 도지테(Pascale Dozité) 여사는 아주 특별한 연결을 통해 동물의 왕국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인류와 함께 나눈다. 그들의 관계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 같다. 케옵스와 파스칼은 말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의 언어를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한다.

우정의 시작과 사명

몇 해 전, 파스칼의 남편이 야영지에서 케옵스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파스칼은 곧 자신이 케옵스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인터뷰에서 파스칼은 자신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직접 연결됩니다.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케옵스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그대로 내 마음에도 떠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그 어떤 정신 능력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아주 단순하게, 케옵스가 어떤 메시지를 받든지 자신도 똑같이 받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렇긴 해도 어떤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이 케옵스에게서 나온 것인지 늘 알고 있다고 한다. 파스칼과 케옵스 둘 다 채식을 한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권합니다. 최소한 채식은 해야 한다고요. 비건(계란과 유제품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지만 최소한 채식이라도 해야 인간들의 폭력으로부터 동물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먹는 게 물질화된 불안, 초조함이란 걸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옵스와 파스칼은 자신들에게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협력해 동물의 인간 반려들을 치유하고 책을 쓰는 것이었다. 케옵스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은 동물의 세계에 가해지는 엄청난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인간의 의식을 일깨우는 경고의 외침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언어(Cet autre language)』라는 그들의 책에서 케옵스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동물의 특별한 면을 많이 밝혔으며 인류가 이 소리 없는 언어에 마음과 영혼을 열기를 진심으로 호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옵스와 파스칼은 자신들에게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협력해 동물의 인간 반려들을 치유하고 책을 쓰는 것이었다. 케옵스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은 동물의 세계에 가해지는 엄청난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인간의 의식을 일깨우는 경고의 외침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언어(Cet autre language)』라는 그들의 책에서 케옵스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동물의 특별한 면을 많이 밝혔으며 인류가 이 소리 없는 언어에 마음과 영혼을 열기를 진심으로 호소했다.

동물의 특별한 역할

케옵스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동물들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동물들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알려 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동물과 인간 모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그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전형적인 예가, 자주 다투는 부부와 함께 사는 애완동물에게 꾀병이 생기는 경우이다. 인간의 문제가 동물의 신체적 고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동물들을 수의사에게 맡기고 약에만 의지한다면, 그 애완동물이 회복될지는 몰라도 대부분 재발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다. 오직 그 부부가 싸움을 멈출 때에야 애완동물의 병이 완전히 낫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치료 상담

이 책에서 케옵스는 전심전력으로 인간을 도우려는 동물들의 소망과 능력, 위대함에 대해 보다 자세히 보여 준다. 어떤 동물들은 치유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하고 대단히 심오한 평화와 기쁨을 발산하기도 한다. 모든 동물은 자신이 있는 곳에 작은 빛을 가져다줄 수 있다. 케옵스와 파스칼의 독특한 관계와 천국의 안내로 그들은 치료 팀을 이루어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해결책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파스칼에 따르면, 상담에 있어서 케옵스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케옵스의 일은 사실상 치료 상담 약속을 잡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때 이미 케옵스는 그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단 그 영혼의 명확한 요청을 받으면 케옵스는 자신의 빛과 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빛의 인도 하에 그 사람의 DNA와,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가갈 수 없었던 내면의 가장 깊은 장애, 가장 깊은 고통을 조사한다. 더 나아가 케옵스는 빛의 인도 속에 자신이 가진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해 일차적인 정화를 하면서 숨겨져 있는 장애를 변형시킨다. 상담을 마치고 나면 당사자는 자신의 그 부분에 다가갈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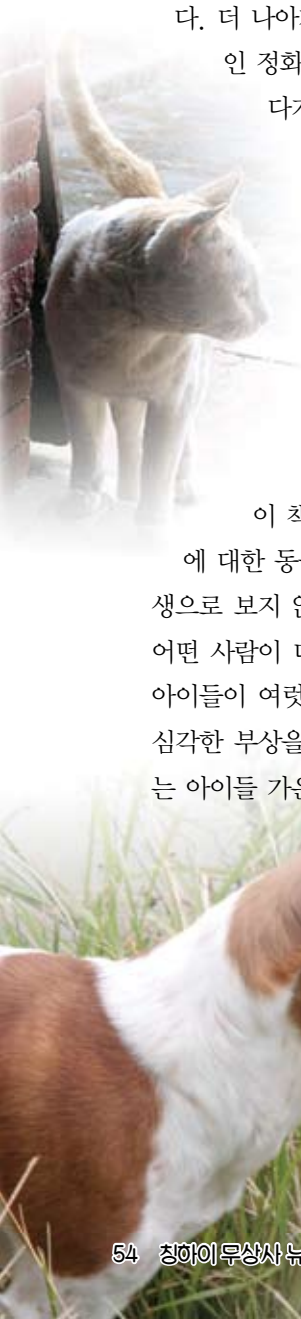
그러나 케옵스와 파스칼은 그 영혼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때로는 약간 더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걸 느낄 경우에도 그렇다. 절대적인 존경심을 갖고 사람들을 돕고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그들은 요청 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는다.

동물들의 사랑

이 책에는 케옵스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장이 있다. 거기서 케옵스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물의 사랑이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동물들은 죽음을 하나의 희생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한 진화 단계로 보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때로 동물들은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살도록 그 사람 대신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난다. 예컨대, 아이들이 여럿 있는 어떤 가정에 살고 있던 이르마(Irma)라는 작은 암코양이의 경우, 어느 날 차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 고양이는 죽기 전에 파스칼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고로 원래는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죽어야 했어요. 난 이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아이 대신 죽기로 했어요.” 그녀가 일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져서 그 당시 죽기로 되어있던 아이가 결국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이 자신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케옵스의 메시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케옵스는





말했다.

“.....인류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인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인류는 동물계든 식물계든 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 행성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인류를 통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물계와 식물계는 이미 이 변화의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인류에게도 필요한 과정인데, 인류만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손아래 두고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는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 가치란 바로 ‘사랑과 존중’이다.

그들의 놀라운 공동 작업 때문에 케옵스와 파스칼은 유명한 국제 매체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지만 그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인터뷰 요청에는 승낙을 했는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대단히 수준 높은 TV 채널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케옵스는, 한 번도 칭하이 무상사를 만난 적이 없지만 자신의 영혼과 스승님의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사명 또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완전히 비슷한 가치관, 특히 인류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케옵스와 파스칼이 하는 일은 아주 특별하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동물과 지구의 다른 거주자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류가 내면에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놀라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신께 간절히 기도드린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파스칼 도지테 & 케옵스와의 단독 대담을 다룬 인터뷰를 시청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mms://video.godsdirectcontact.org.tw/smtv/aw365-367.wmv](https://video.godsdirectcontact.org.tw/smtv/aw365-367.wmv) (인터넷 시청)

[rtsp://video.godsdirectcontact.org.tw/smtv/aw365-367.wmv](https://video.godsdirectcontact.org.tw/smtv/aw365-367.wmv) (인터넷 시청)

<http://video.godsdirectcontact.org.tw/smtv/aw365-367.wmv> (다운로드)

케옵스가 인류와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은 스위스 출판사인 아고르마(Agorma)를 통해 『또 하나의 언어』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agorma.ch> (프랑스어)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스승님께서 축복 사탕으로 나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베츠카 K-부르 사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빅토리아 (원문 영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승님에 대한 우리의 신심은 날로 커진다.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은 언젠가 부처님이 그 제자를 돌보듯이 당신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돌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여기에 기도의 힘을 보여 주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

나는 몇 달 동안 기침을 계속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특히 더 심해지곤 했다. 이삼 주 전인가, 막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였다. 아침이라 빈속이었고 남편 존과 주방에 서 있었는데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기침이 꽤 심해지기 시작해서 나는 폐로 좀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양팔을 들어 올렸다. 남편이 물을 갖다 주었지만 기침은 심해지기만 했다. 내가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다. 사실 나는 내가 곧 죽을 것임을 알았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그 기분은 이상했다.

나는 조용히 간절하게 스승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그밖에 뭘 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즉시, 말 그대로 바로 그 즉시 직관적으로 ‘사탕!’이 떠올랐다. 작년 11월 태국에서 열렸던 국제 선행사 당시 내가 연단에 앉아 있었을 때 스승님께서 사탕 한 개를 주셨던 게 생각났다. 나는 그 사탕을 서랍 속에 넣어 두고, 그 속에 들어 있던 다른 모든 사탕에도 축복이 깃들도록 했었다. 남편에게 서랍 속에서 사탕 하나를 갖다 달라고 부탁하자 남편은 “안 돼, 당신 미쳤어? 질식할 거야.”라고 말했다. 난 숨을 헐떡이며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다. “아냐, 방금 스승님께 기도했는데 나한테 사탕을 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야.” 남편은 얼른 사탕을 갖고 와 껍질을 까 주었다. 그 즉시, 다시 한 번 정말 바로 그 즉시, 축복 사탕이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기침이 멈췄다. 그 순간 자애로운 스승님의 현존이 나의 폐를 생명의 선물, 호흡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일은 내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다.


마음 깊이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

스승님은 그 즉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하신다. ‘사탕’이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해서 마치 천사의 날개를 타고 나에게 전해진 듯한 느낌이었다.



더 많이 명상할수록, 인류와 환경과 동물들에게 보다 많이 봉사할수록, 예컨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같은 일을 통해 봉사할수록, 그리고 스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행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경축할수록 스승님에 대한 신심도 더욱 커진다.

스승님,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이 진정 ‘최고의 친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빛으로 환히 빛나던 중추절 보름달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올해 중추절에는 열두 명의 관음 동수들이 양로원에 모여 명절을 보냈다. 월병과 과일이 그다지 풍성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멀리서나마 스승님께 차를 올렸다.

저녁이 되었어도 날씨가 흐려 달을 볼 수 없었으나 스승님을 회상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 열두 명의 관음 제자들은 다 같이 스승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날 밤에 달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확신에 찬 말로 스승님의 축복을 기도드렸다. 그러자 곧바로 달콤한 향기와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양로원에 가득 퍼졌다. 자비로운 스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저녁 파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금빛 달이 천천히 구름을 헤치고 나와 우리를 내려다보았는데, 마치 스승님의 웃는 얼굴 같았다. 우리는 기쁘고도 놀라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엄마 스승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한 곡, 또 한 곡,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짐에 따라 하늘의 달도 점점 더 밝아졌다. 금빛 달은 밤하늘 높이 떠서 거의 3시간이나 그렇게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다 같이 명상을 1시간 한 후에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까지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모두가 자리를 떠나고 나자 달도 자리 갔다.

주: 이 양로원은 5년 전에 한 사저가 문을 연 곳으로, 주로 연로한 동수들이 거주하며 명상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된 동수 1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이야기 세상 

잊지 못할 중추절 월병

포모사 타이베이/ 량량 사형 구술, 산산 사저 기록 (원문 중국어)

우리 가족은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즐기며 올해 중추절을 보내고 있었다. 따뜻한 불을 쪼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을 먹을 때, 남편은 여러 해 전 갓 입문했을 때 경험했던 감동적인 추억을 떠올렸다.

그해 중추절 때 스승님께서 달의 여신인 상아의 복장을 하고 나와 제지들과 함께 시후 센터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사람들마다 스승님의 축복이 가득 담긴 월병을 두 개씩 받았다. 남편

도 자기 몫을 받았는데 두세 입 만에 금방 다 먹어 버렸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한 듯해서 주방에서 월병이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식사 지역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그때 그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한 사저와 마주쳤다. 갑자기 남편은 “그에게 월병을 주어라!”라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사형은 그녀가 깜짝 놀라며 멍뚱하는 표정을 보고 그녀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사형은 내면의 스승이 거의 명령조로 “그는 지금 군복무 중이다. 그에게 월병을 주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제서야 그 사저는 정신을 차리고는 방긋 웃으며 물었다. “군복무 중이에요?” 남편은 점연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선선히 자기 월병 두 개를 주었다. 구하기 힘들고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월병을 찬찬히 음미하던 사형의 가슴은 스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스승보다 제자를 더 잘 아는 이는 없는 법이다. 당시 군복무 중이던 그는 식욕이 왕성했다. 그래서 스승님은 그 사저를 통해 월병을 두 개 더 주시으로써 그를 만족시켜 주셔야 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이 생생하고 또한 스승님의 세심하기 이를 데 없는 보살핌에 새삼 감동하게 된다고 한다. 🍁

동물을 대하는 방식

침하이 무상사/ 2007. 10. 25. 포모사 타이베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신간 발표회 화상회의 (원문 중국어)

우 리 애완동물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안락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동물에게도 존엄성이 필요합니다.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물들을 대하면 그들에게 아주 이롭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물을 존중해 주면 동물도 여러분을 존중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다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저 먹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층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니카라과

스승님의 사랑을 니카라과에 전하다

니카라과 구호 팀 (원문 스페인어)

10월 20일, 코스타리카와 미국의 협회 회원들은 재난 구호 팀을 결성해 니카라과로 가서 수재민들을 도왔다. 12일간이나 지속된 폭우로 많은 가옥과 도로가 파괴되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물 등 기본 생필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

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재난 소식을 듣자마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미화 2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니카라과에 도착한 구호 팀은 홍수 지역의 정부 기관과 연락을 취해 원조가 필요한 가구 수와 가장 시급한 물품을 파악했다.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각 가정에 전달할 쌀·설탕·콩·밀가루·생수·우유·식용유·소금·스파게티·라면·과자·성냥·초 등으로 된 꾸러미를 준비했다. 구호 팀은 여러 지역 시장들과 협력해 일하고 재난 지역으로 물품을 운반할 차량을 임대했다.

푸에르토모라잔(Puerto Morazán) 지역의 후아나 텔레스(Juana Teyllez) 시장이 특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불별더위 속에서도 구호 팀이 관내 5개 구역을 방문하는 긴 여정 동안 내내 동행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주민 상황을 시찰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방문하는 지역마다 스승님을 소개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표한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우리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구호 팀은 총 27개 지역을 방문해 1,307가구에 긴급 생필품을 전달했다. 우리는 너무 외진 곳에 있고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정부 기관조차 아직 접근하지



못한 지역들만 골라서 찾아갔다.

이렇게 외진 곳을 찾아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매우 지치기도 했지만 이재민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홍수가 발생한 지 이미 3주가 지났는데도 우리 구호 팀이 식품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지역들이 꽤 많았다. 몇몇 지역에서는 스승님께서 식량을 보내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주민들이 “칭하이, 칭하이, 칭하이!” 하며 찬양하기도 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신께서 제때에 자신들의 기도 응답하시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견본책자를 다 나눠 주고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어떤 사람은 견본책자를 받고선 한 시간이 넘도록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은 뒤 채식을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구호 작업을 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었다. 현지 기자인 루이스 알베르토 우마냐(Luis Alberto Umaña) 씨는 우리와 동행해 모든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필요한 전화번호를 구해 줬을 뿐 아니라 지역 TV 채널 두 곳과 연락을 취해 스승님께서 니카라과를 도와주신 일을 보도하게 했으며, 후아나 텔레스 시장과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스승님의 시기적절하고 사려 깊고 관대한 구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구호 활동을 돕고 싶어하며 적은 금액만 받고 우리를 초코라테 섬(Chocolate Island)까지 데려다주었고, 자신들도 이재민이면서 매일 우리에게 와서 다음 마을에 전해 줄 식품 포장에 도와준 친절한 주민도 두 사람 있었다.

이재민이면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구호 팀이 가는 곳마다 비가 그친 일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에 태양이 얼굴을 내밀어 여행을 순조롭게 해주었고 아주 외진 곳에 자리한 마을을 찾아갈 때조차 진흙탕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자비를 전하는 사자(使者)가 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수재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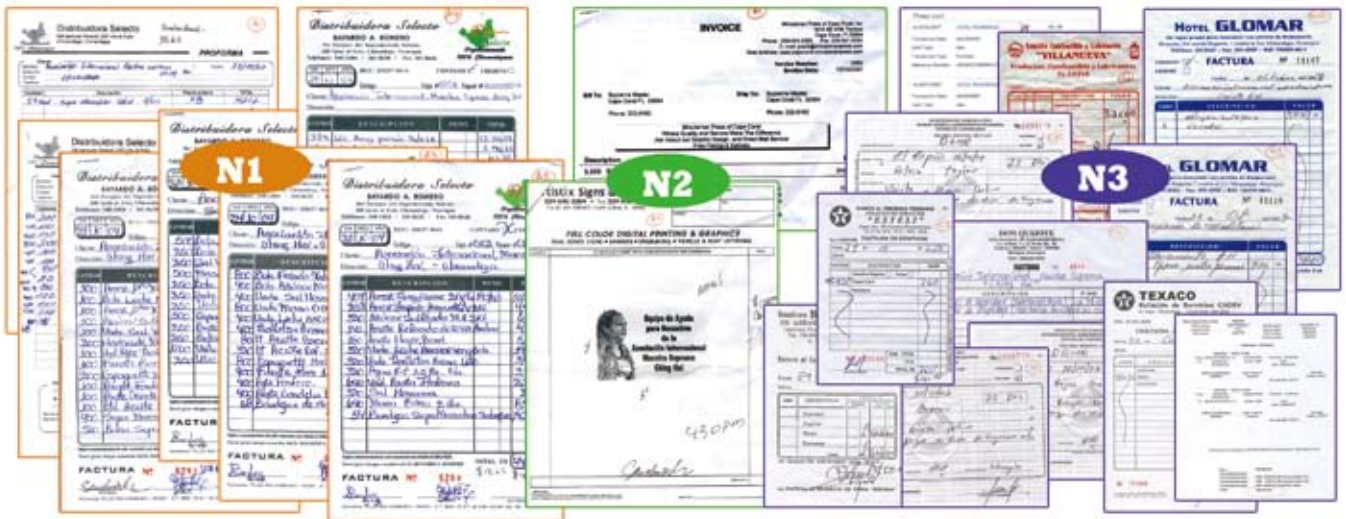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니카라과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니카라과 코르도바)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쌀·설탕·콩·밀가루·생수·우유·식용유·소금·스파게티·라면·과자), 성냥, 초	372,366.74	N1
전단, 현수막	12,139.55	N2
운송료, 차량 임대료, 연료비, 숙박비, 통신비 등	45,828.01	N3
합계	430,334.30 미화 23,375.03달러	



어울락

어울락 중북부 홍수 구호 활동 보도

어울락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2007년 10월, 45년 만에 최대 폭풍우를 몰고 온 태풍 레키마(Lekima)가 어울락 중부와 북부 지방을 강타해 대홍수를 일으켰다. 재난 소식을 들으신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즉시 미화 만 달러를 내놓으셨고 동수들도 성금을 보냈다. 북부에서는 하띤(Ha Tinh), 응애안(Nghe An), 타인호아(Thanh Hoa), 닌빈(Ninh Binh) 성이, 중부에서는 팡찌(Quang Tri), 투어티엔후에(Thua Thien Hue) 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스



승님의 축복 속에 어울락 중북부 동수들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하퐁 지역에 쌀과 다른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다. 이 지역은 태풍의 눈에 속했었기 때문에 많은 가옥이 무너지거나 떠내려가고 파손됐다. 주민들은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보내 주신 도움에 깊이 감동하며 진심으로 감사히 여겼다. 동수들은 총 20명의 고아와 무의탁 노인 30여 명, 179 가구를 방문해

스승님의 사진과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타인호아와 닌빈 지역은 홍수로 인한 가옥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농작물이 모두 손실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지역 309가구에서는 스승님의 선물을 매우 반갑게 받았다.

중부 어울락 후에 지방에서는 홍수로 유입된 물이 완전히 빠지기도 전에 16가구를 도와주었으며, 그 다음 날부터는 다른 지구의 여러 마을들을 돌며 634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했다. 요양원과, 노숙자·노인들·궁핍한 엄마들을 보살피는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구호 팀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긴급 물자를 제공했다.

중부 지방은 레키마로 산사태도 일어났는데, 팡빈 성과 응애안 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협회 회원들은 태풍 피해를 입은 학교 세 곳에 선풍기를 구입하고 책걸상 등의 비품을 수리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그 지역 어린이들과 가정에 선물과 '대안적인 삶' 전단도 나누어 주었다.

응애안에서는 많은 가옥의 지붕이 날아가고 일부가 폭풍우에 크게 파손되었다. 농지 수백 에이커가 물에 잠기거나 많은 부분이 완전히 유실되었으며, 도로가 많이 훼손되는 바람에 구호 기관들이 절실히 필요한 구호품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동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한 마을을 찾아가 많은 가정을 방문해 고통과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신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스승님의 사진과 '대안적인 삶' 전단, 그리고 라면·의약품·과자 등의 물자와 성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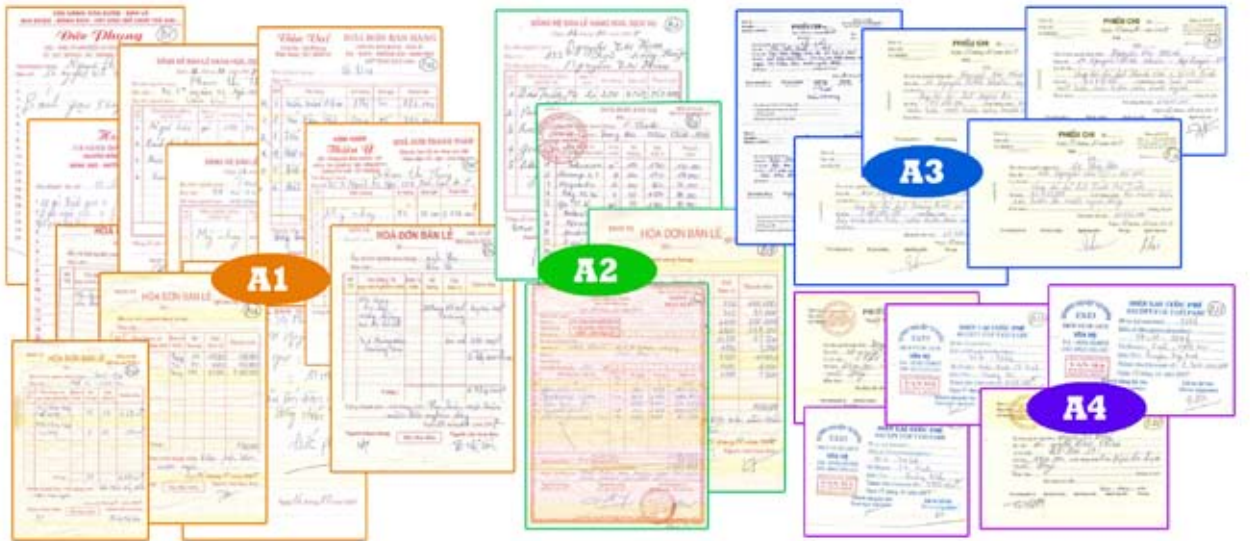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우리는 중부와 북부 지방의 약 50개 지역을 방문해 1,242가구를 도왔다. 어울락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어울락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베트남 동)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시리얼·라면·과자·우유·생수)	38,926,000	A1
약품	6,704,932	A2
이재민과 지역 관공서에 제공한 지원금	396,010,000	A3
교통비(트럭 임대료, 연료비)	18,100,000	A4
합계	459,740,932 미화 28,573.85달러	



필리핀

투게가라오 대교구에 신의 축복이 이어지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통신원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는 언제나 시기적절하고 사려 깊고 세심하게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신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10일, 칭하이 무상사는 대리인들을 통해 ‘퇴직 성직자의 집’ 건립을 위해 미화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필리핀 투게가라오(Tuguegarao)의 은퇴 성직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였다. 이 사업에 금전적 후원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스승님은 황금시대 3년, 필리핀에



협회 회원이 투게가라오 대교구 성직자들을 위한 '퇴직 성직자의 집' 설립을 위해 스승님께서 추가로 기부하신 미화 10만 달러를 전달하다.



은퇴한 성직자들을 대신해서 탈라마얀 대주교가 스승님의 관대한 기부에 감사를 표하다.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는데 그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널찍한 '퇴직 성직자의 집'에서 담당 간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보살핌도 잘 받고 바깥에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한 신부는 “이곳은 우리가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살게 될 멋진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신부들이 동수들에게 자신들의 사랑과 안부를 칭하이 무상사께 전해 달라며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이토록 큰 도움을 주는 스승님의 관대함에 감사했다.

대표단이 마닐라에 도착한 저녁, 주교들과 신부들은 2,000년에 스승님이 마닐라에서 하신 강연 비디오를 시청했다. 그들은 스승님의 지혜와 통찰력 있는 말씀에 놀라워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 우리는 이들에게 스승님의 책과 DVD, 초콜릿, 포모사 전통 파인애플 케이크를 선물했다. 이처럼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위에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날 밤 82세의 몬시뇨르 키토(Monsignor Quinto) 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운명했는데, 그의 가족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임종이었다고 전했다. 탈라마얀 대

서 가톨릭주교회의가 열렸을 때 은퇴한 성직자들에게 미화 1만 5천 달러를 기부하신 데 이어 투게가라오 대교구의 탈라마얀 대주교의 답신을 통해 건축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서 다시 미화 2만 달러를 추가로 후원하셨다. (뉴스잡지 185호, 189호 참조) 최근 이 공사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했으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승님은 곧바로 미화 10만 달러를 또다시 제공해 '퇴직 성직자의 집' 완공을 앞당기셨다.

투게가라오의 퇴직 성직자에게 꼭 필요한 안식처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은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기금이 충분치 못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탈라마얀 주교의 꾸준한 노력과 칭하이 무상사의 온정이 넘치는 관대한 기부 덕분에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2008년 1월이면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까지 이 연로한 성직자들은 가족을 떠나 평생 신을 섬기고 사심 없이 다른 이들을 도왔지만 은퇴한 뒤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늙고 몸도 불편해진 성스런 이들은 종종 돌봐 줄 형편이 안 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 의지해야만 했다.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되면 이들 존경받는 주교와 신부들은 이곳에서 적절한 의료 혜택까지 받으며 노인에게 알맞게 설계된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흘간의 일정 중에 스승님의 대리인들은 이곳에 살게 될 은퇴한 성직자 몇 분을 만나 면담을 나눴다. 모두가 행복해하며 입주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미구엘 푸루가난(Miguel Purugganan) 주교는 몇 년 전에 뇌졸중이 왔다. 집이 다소 좁고 휠체어를 쓸 수



탈라마얀 주교가 스승님께 보낼 감사장을 전달하다.



주교와 신부들이 스승님의 선물을 받다.



주교와 신부들이 스승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찬송가인 '신의 은총이 있기를'을 부른다.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과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의 영혼이 신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께서도 “하루속히 ‘퇴직 성직자의 집’이 견고하게 잘 지어져 신부님들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은퇴한 한 주교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주의 깊게 읽고 있다.

약간이나마 편안함을 얻으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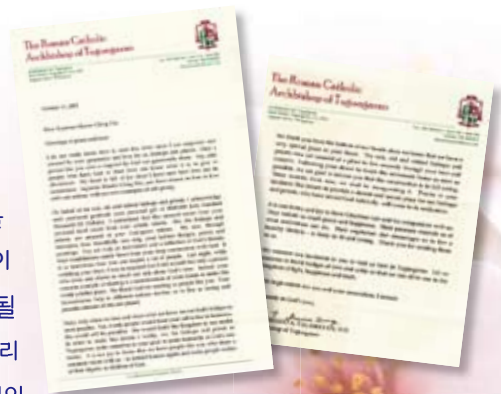
예상치 못한 이 선물에 투게가라오의 디오스다도 탈라마얀(Diosdado A. Talamayan, D.D.) 대주교는 기쁘고 놀라워하며 10월 11일, 스승님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대교구 내의 모든 성직자들이 깊은 감사를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늙고 병들고 은퇴한 주교들과 신부들을 대신해, 당신이 보내 주신 미화 10만 달러라는 큰 선물을 받았음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 돈은 당신께서 예술적 재능으로 마련하신 개인 기금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교들과 신부들은 신이 부여하신 당신의 재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와 패션 디자인, 시와 그림들을 보았는데, 당신은 진정 신성한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젊음은 분명 신과의 깊은 내적 교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겠지요.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밤 당신의 비디오를 보는 동안, 나는 매우 감동을 받아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과 나눔을 베푸는 사람만이 신의 사랑을 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진정 당신은 구체적인 나눔의 본보기를 통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돕는 당신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이 행성에서 사랑과 평화의 시민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진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눌 때라야 비로소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당신의 부르메 응답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투게가라오의 주교와 신부들은, 인류를 신의 한가족으로 융합하려는 당신의 목표에 맞추어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전, 인권을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신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일깨우려는 공통된 비전을 지니고 있는 당신과 같은 분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대주교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진다.

“가능한 한 빨리 ‘퇴직 성직자의 집’이 완공되길 바라는 당신의 바람에 따라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3개월 후면 개관될 것입니다.린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우리를 방문해 주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대단히 많은 평화와 행복의 기운을 발산하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명상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채식 음식은 우리에게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끝에 주교들과 신부들은 투게가라오로 스승님을 초청했으며, “우리 모두가 빛과 행복, 진리의 왕국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통합의 다리를 계속 놓기를” 희망했다. 🍁



탈라마안 대주교가 ‘퇴직 성직자의 집’ 앞에 서서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신 신을 찬미하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우물을 파서 가뭄을 해결하다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내 몽골 통랴오(通遼) 시 자루터치(紮魯特旗)에는 ‘카간바오리가오’라는 산촌이 있다. 이곳은 지하수의 수위가 매우 낮아서 주민들이 줄곧 물 부족을 겪어 왔다. 2002년, 지역 당국이 주민들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설비해 생활 용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눈에 우물을 파는 것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성공률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우물 팔 생각은 아예 접고 비가 내리기만 바라고 있었다.

올해 이 마을은 백 년 만에 찾아온 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거의 말라 죽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곧바로 지원의 손길을 뻗었다. 우리는 9월에 마을 주민들에게 식량과 기름, 채소 같은 구호 물품을 보내 주고 주민들을 위해 40m 깊이의 농업용 우물도 다섯 군데 뚫다. 40여 가구의 농가가 이 혜택을 입게 됨으로써 흉년을 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윈난 성

빈곤 구제 활동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윈난 성 바오산(保山) 지구 일부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지 동수들은 즉시 그들을



둑기로 하고 10월 초, 그 지역 마을 운영위원회를 방문했다. 촌장은 우리의 뜻을 알고 난 후 극빈 가정 24가구의 명단을 제공해 주었으며 인근의 극빈 가정으로 안내도 해주었다.

우리는 극빈 가정 수대로 쌀·식용유·소금 등의 물품을 구입했다. 먼 곳에 사는 주민들은 배포 당일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배급 물자를 마을 운영위원회에 잠시 맡겨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그곳에 가서 물자를 나눠 주었다. 그중 두 가구는 특히 더 어려운 형편이어서 우리는 따로 새 옷도 몇 벌 전달했다. 물품을 받은 주민들 모두가 매우 기뻐했고 촌장도 우리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포모사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24일, 포모사 타이베이에서 열린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에는 ‘중화민국 동물복지·환경보호협회’ 이사장 류상란(劉香蘭) 여사도 귀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뉴스잡지 190호 특집 기사 참조) 화상회의에서 스승님은 참가자들과 유기 동물들의 수용과 중성화 수술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여러 의견을 제시해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발휘해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이끌어주셨다. 20여 년 동안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보살피는 일에 헌신해 온 류 이사장은 스승님의 탁월한 견해에 무척 탄복했으며, 스승님께서 그녀가 설립한 동물 보호소에 미화 만 달러를 기부하신 데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10월 23일, 류 이사장은 사랑의 바다 문예광장에서 기부금을 직접 수령했다. 그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강한 에너지 자장을 느꼈으며,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기운이 자신의 팔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승님께서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를 중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돌이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기금으로 동물 입양과 중성화 수술을 주제로 하는 단편 영화를 만들어 포모사 전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류상란 여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만 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하다.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tres@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be Didier/ 229-90-93-29-99/ smptonovo@yahoo.fr
★ 부룬디/ Kigali/ Mr. 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Hung Lui-Liang/ 243-81361939/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Mbaui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나이지리아:
예니고아/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yahoo.fr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logo@gmail.com
로메/ Mr. GBENYON Kuakouv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b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브라질: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케이리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l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i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c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1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ins@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t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mai@yahoo.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ai@gmail.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도/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a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hotmail.com
 § 매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nmn@yahoo.com
 § 미주리: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크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델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델러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델러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델러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hotmail.com
 버지니아버치/ Le Thanh Liem/ 1-757-461-5531/ qyt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ns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i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sh.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t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7-95119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서울/ 류경남/ 011-715-7693/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송호준/ 010-3599-4552/ shj92324@hanmail.net
 부산/ 황상원/ 051-805-7283/ 817hsw@naver.com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10-3804-5048/ freely3456@yahoo.co.kr
 대구/ 한선태/ 010-3034-5232/ sunny5338@hanmail.net
 대구/ 차재현/ 010-4666-0733/ edwadcha@yahoo.co.kr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7-425-2390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광주/ 조명태/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h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삼태/ 010-4570-9244
 울산/ 센터/ 052-224-4111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센터/ 033-763-9358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v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볼/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lotcenter@yahoo.com
 코볼/ Ms. Tsend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oveocean.mnl@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c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2277/ bkkcpcr@g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nnian/ 66-50-332136/ siriwanli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yahoo.com
 두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64-9953748/ qyaustria@googlemail.com
 비엔나/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quanyinsotia@gmail.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i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i.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i.cz
 ★ 덴마크:
 오덴스/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자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r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i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t@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i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jk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페사카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캄포바소/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fancy_l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sbohomi.sk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forevershinelove@gmail.com
 마리보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발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4361
 발렌시아/ Mrs. Weng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인스위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hotmai.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t@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미드 노스 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리버스/ 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6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au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sch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 CG18 (중국어)

진정한 채식이란 무엇인가

1989. 1. 10. 포모사 타이베이 단체명상

주요 내용:

스승님이 포모사에서 홍법을 막 시작하셨던 초창기에는 아직은 순수 채식이 대중적이지 않아서 완전 채식 식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 단체명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음식에 조심해야 함을 서로 일깨워 주었다. 이 밖에 스승님은 다음과 같은 수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해 주셨다. 명상 중 삼매에 드는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하면 좀더 연장할 수 있을까? 오불을 외워야 하는 까닭은? 어떻게 외워야 정확한가? 경을 읽어 천도시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의식(儀式)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가?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662 (영어+37개 언어 자막, 새로운 자막 추가 재판)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

1999. 6. 9. 영국 런던 강연

주요 내용:

1999년, 유럽 코소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칭하이 무상사는 동수들의 초청에 응해 유럽 18개국 수도를 방문하였다. 여행 중 스승님은 크나큰 고난과 위험에 용감히 맞서며 신성한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스승님이 그 사명의 종착지였던 런던에서 강연하시는 동안 코소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훌륭한 강연에서 스승님은 신성한 세계의 특징과 인류가 신을 볼 수 있는 방법, 고대 문명의 은하 간 여행 속도, 이러한 고도의 문명들이 사라진 이유, 과학과 영성의 관계, 자유의지의 문제에 관해 말씀하시는 한편 다음과 같은 질문에도 답해 주셨다. 어째서 깨달은 스승의 화신이 가장 높은 신의 화신과 같은가? 업장과 운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14 (영어+18개 언어 자막)

개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주요 내용:

스승님은 당신의 개들과 함께 지내신 즐거운 순간들을 모두와 함께 나누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들이 정말 똑똑한 존재라는 사실과 깨달은 스승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스승님은 레몬 물로 개를 깨끗이 씻기고 식촛물로 집안을 청소하는 등의 몇 가지 비법도 알려주신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따르는 책임과 애완동물들을 돌볼 때는 자신을 돌보듯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다. 인간과 동물 간의 조화로운 공생이 세계 평화의 초석이다. 이 고귀한 생활 방식을 실현하고자 우리 동물 친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아의 마음, 충성심, 남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 왔다. 🍁



DVD 747 (영어+15개 언어 자막)

신선과 용의 후에

2002. 5. 11.&13.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주요 내용:

‘어울락’은 무슨 뜻인가? 그 이름이 ‘베트남’보다 더 좋은 까닭은? 명상 중에 다리가 저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상 중 무형 중생의 방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하지 않은 날은 먹지 않는다’라는 격언의 유래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니 스승님의 유쾌한 농담을 즐겨 보자!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개 우리는 그리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뭐든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 누가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부처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나면 완전히 놀라고 말 것입니다!” 🍁

